

# 청년! 아시아를 품다!



##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청년서포터즈 3기 모집

모집기간 2012년 7월 1일(일)까지 접수 마감

신청방법 청년서포터즈 카페  
(<http://cafe.naver.com/ysupporter2014>)

지원서양식 다운로드 → [y\\_supporter2014@icice.or.kr](mailto:y_supporter2014@icice.or.kr) 로 이메일 접수



※ 자세한 일정은 카페 참조

신청방법: 청년서포터즈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 최종선발

모집인원 총 400명(국가별 20명)

신청자격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청년(20~30대)

### 권역 및 모집국가

권역	국가
동아시아	중국, 홍콩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남아시아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서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바레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팔레스타인

※ 국적별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음

활동내용 국가별 소모임활동 / 단체활동(OT, 워크숍, 인천대장정 등)  
개최지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행사 참여 등

활동기간 2012년 7월~12월

인센티브

우수활동자 인천시장 명의 활동인증서 발급 및 해외 배낭여행

#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2 6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2년 6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종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una1488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김보섭·김성환·홍승훈(자유사진가)  
 심영보·하장원(시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디자인 & 인쇄** 성광디자인(주) T. 032.881.9441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http://goodmorning.incheon.go.kr)과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http://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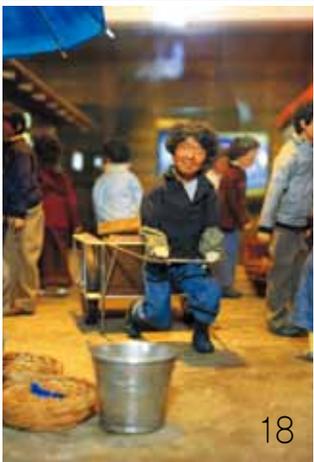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T.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6 그 섬, 그곳에 있었네 / 소무의도  
**그 섬에선 바람이 길을 안내한다**  
 무의도는 대무의도와 소무의도를 일컫는다. 이번에 큰 섬과 작은 섬 사이에 다리가 놓였다. 두 형제 섬은 손을 잡았지만 아직 물과 닿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도는 여전히 '섬'이다.



10

10 Cooling Incheon / 친수공간  
**물아! 물아! 네게로 가고 싶다**  
 탁 트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위로 지쳐가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 물이 있어 시원하고, 섬으로 인해 건강해지는 친수공간에 있노라면 이 여름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



18

14 수인선 I / 복선전철 우선 개통  
**수인선, 기적의 汽笛 다시 울린다**  
 수인선이 오는 30일, 송도에서 오이도 구간을 시작으로 복선전철로 새롭게 개통한다. 좁은 선로 위를 뒤통거리던 꼬마기차 수인선이 최신행 전동열차로 다시 태어났다.



24

## Contents

- 04 **Communication** 인천시 모바일 홈페이지 정말 좋아요! 외
- 06 **그 섬, 그곳에 있었네** 소무의도
- 10 **Cooling Incheon** 친수공간
- 14 **수인선 I** 복선전철 우선 개통
- 18 **수인선 II** 소래역사관 개관
- 20 **시정토크 앱** 인천의료관광
- 24 **Incheon Life** 벼룩시장
- 28 **Zoom In**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 32 **아름다운 사람** 공무원문예대전 대통령상 수상자 전병호
- 34 **Art Incheon** 비영리 전시공간 국제교류
- 36 **Culture News** 미하일 플레트네프 & 러시아안 너셔널 오케스트라 외

- 40 **Vision Incheon** 미국 투자유치 성과
- 42 **Civic News** '인천경제자유구역 FDI 실적 국내 FEZ 중 최고' 외
- 46 **Council News** '전국최초 학교폭력예방 조례 제정' 외
- 48 **Focus** 재능대학교에 온 나이지리아 연수생
- 49 **건강칼럼** 세포는 '소식(小食)'을 좋아해
- 50 **Info box** 제1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외
- 55 **리크루트** 인천 고용정보
- 56 **Cartoon** 인권상담과 인권 침해 진정 방법
- 57 **인천사는 이야기** Love Incheon 외
- 58 **모닝커피 한잔** 평생학습은 '섬세'해야 한다.
- 59 **인천풍경 플러스** 갔다 올까?



### Cover Story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인천학도의용대와 연평대전의 순국장병들의 넋을 기린다. 조국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용사들에게 환국화를 헌화하는 모습을 소멸기법으로 표현.

편자 · 김경배 작



### <굿모닝인천>의 못 다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의 취재 영상부터 뒷이야기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종이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페이지 상단의 QR 코드 촬영  
 스마트폰인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인천시미디어>앱을,  
 태블릿 PC인 경우 <굿모닝인천>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



## 인천과 통(通)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시 대표 미디어와 SNS에서 우리 만나요.

###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블로그** (blog.naver.com/flyic)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 인천시 모바일 홈페이지 정말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시 홈페이지를 자주 봅니다. 사실 그동안은 인천시 모바일 홈페이지가 없어 작은 화면으로 홈페이지를 보기가 불편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인천시에도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접속해보니 홈페이지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더라고요. 자주 보는 새소식이나 전시공연 정보도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시 모바일 홈페이지가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했으면 합니다.

\_ 강병욱 연수구 경원대로

### 건전한 결혼 문화가 자리 잡길

결혼하기 좋은 계절이라 요즘 주말이면 결혼식장을 찾아다니기 바쁩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기듯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보면, 결혼 화려할지 몰라도 왠지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이번호 <굿모닝인천>을 통해 우리 주변에도 결혼식을 실속 있게 올릴 수 있는 장소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까운 분들만 초대하여 의미 있게 새 출발을 다짐하는, 제대로 된 예식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_ 조수빈 부평구 굴포로

### <굿모닝인천>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파

<굿모닝인천>은 여러모로 제게 도움을 줍니다. '2014 하나되는 아시아'를 보며 시야를 세계로 넓히고 인천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시민의 의견을 함께 나누는 장도 다양하게 있고 있는데, 시민으로서 제 생각을 말하자면, 아껴 쓰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이웃과 함께 논하고 싶다는 겁니다. 가정경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인천과 대한민국의 경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_ 박현주 남구 경인남길

### 몸과 마음을 바로잡는 계기

<굿모닝인천>은 항상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줍니다. 5월호 한 방갈럼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몸이 나른하고 의욕이 사라졌는데, 생활수칙만 간단히 바꿔도 얼마든지 피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을 지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겠습니다.

\_ 박성욱 경기도 김포시

### 자선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굿모닝인천> 애독자이자, 인천밴드협회 이사입니다. 시민여러분이 좋은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우리 협회가 이달 23일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자선콘서트를 엽니다. 주제는 자살예방캠페인으로 인천의 밴드 10개 팀이 참가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모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도 도울 계획입니다. 꼭 와주어서 아름다운 인천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_ 김신중 남구 경인남길

### 매력적인 인천을 여행하고파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군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인천을 자주 접합니다. 볼수록 알고 싶어지는 도시인데, 정작 저는 인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인천을 여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굿모닝인천>처럼 인천의 관광명소와 축제, 먹거리 등에 대해 잘 알려진 홍보책자를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은 참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_ 민경이 전북 군산시

### 사진 한 장, 마음의 긴 여운

<굿모닝인천>은 언제나 좋은 콘텐츠로 마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굿모닝인천>을 통해 중국 차이나타운을 접하고 지난 중국의 날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조만간 다시 또 가고 싶을 만큼 즐거웠습니다. '인천 풍경 플러스'도 잘 보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짧은 메시지만 마음에도 다가오는 바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제게 있어 <굿모닝인천>은 메마른 삶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_ 장명숙 남구 미추홀대로

### 가능성 있는 도시 인천

요즘 인천 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인천은 꼬떡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송도국제도시를 가보고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미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가 있다'니라고요.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미국을 방문해 투자유치 성과를 이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인천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도시이기에, 곧 위기를 털어버리리라 생각합니다. 인천 파이팅!

\_ 신민섭 서울시 노원구

##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인하대 학생입니다. 홀플러스 인하대점 옆에서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것 같아요. 신경써주세요.

관련 기관인 남구청에 통보해 민원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청소 등 환경정비를 시행토록 조치했습니다.

**@Bulloger** 인천은 콜비즈 운동 안하나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해마다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절약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높이기 위해 복장 간소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행적인 정장·넥타이 착용을 지양하고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Bulloger** 인천을 상징하는 색은 무엇인가요?

인천의 시(市)색은 청색입니다. 인천은 항구도시로서 청색은 바다색을 표현한 것으로, 힘차고 굳센 기상과 대양을 향한 꿈을 상징합니다.

**@Bulloger** 시장님, 현재 인천로봇랜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언제쯤 완공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사업자 중복문제로 인천로봇랜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이를 해결해 로봇랜드 조성실행 계획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와의 유기적으로 협조해 오는 2014년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Bulloger** 가끔 서울에서 인천콜을 이용하는데, 부당요금 요구나 합승 등 기사들의 횡포가 부쩍 늘었습니다.

택시 이용 시 부당요금 요구, 합승 등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우리시 미추홀콜센터(032-120)로 차량번호 등을 신고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전재우(당시 만 21세, 남)  
**발생일자** 2011년 10월 23일(일)  
**발생장소** 남구 문학동  
**신체특징** 착의불상  
**제보처**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 그 섬에선 바람이 길을 안내한다

다리가 놓여지면 섬은 '섬'이 아니다. '서다'에서 나온 말이 '섬'이기 때문이다. 발걸음이든 자동차든 물 때문에 멈춰서야 그게 섬이다. 무의도는 대무의도와 소무의도를 일컫는다. 이번에 큰 섬과 작은 섬 사이에 다리가 놓였다. 두 형제 섬은 손을 잡았지만 아직 물과 닿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도는 여전히 '섬'이다.

글·사진. 유동현\_본지 편집장



## 이젠 두물 건너가는 섬

소연평도, 소청도, 소이작도, 그리고 소무의도. 이들 섬은 억울하다. '소(小)'자가 붙었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지 못한다. 섬이 작다고 바다의 품도 좁을까. 크기가 작아 '소' 자가 붙었을 뿐 섬이 갖출 '스펙'은 다 갖추고 있다. 섬은 작지만 나름대로 멋이 있다.

소무의도로 가려면 두 물을 건너야 한다. 물에서 용유도로 건너 온 후 대무의도를 다시 거쳐야 한다. 불과 8개월 전에는 세 물을 건너야 닿을 수 있는 곳이었다.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대무의도 광

명마을 선착장에서 건너편 500여 미터 떨어진 소무의도 통장에게 '콜'을 해야 했다. 잠시 후 통장은 작은 배를 몰고 큰 섬으로 손님 마중을 나왔다.

멀리뛰기라도 하면 폴짝 건널 수 있을 것 같은 두 섬 사이의 바다에 다리가 놓였다. 1년 전 400여 미터짜리 아치형 다리가 놓였다. 사람과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인도교다. 그래서 소무의도에서 필요한 물품은 여전히 배를 이용해 옮기거나 오토바이로 다리 위를 달린다.



## 떠밀려 바다에 멈춘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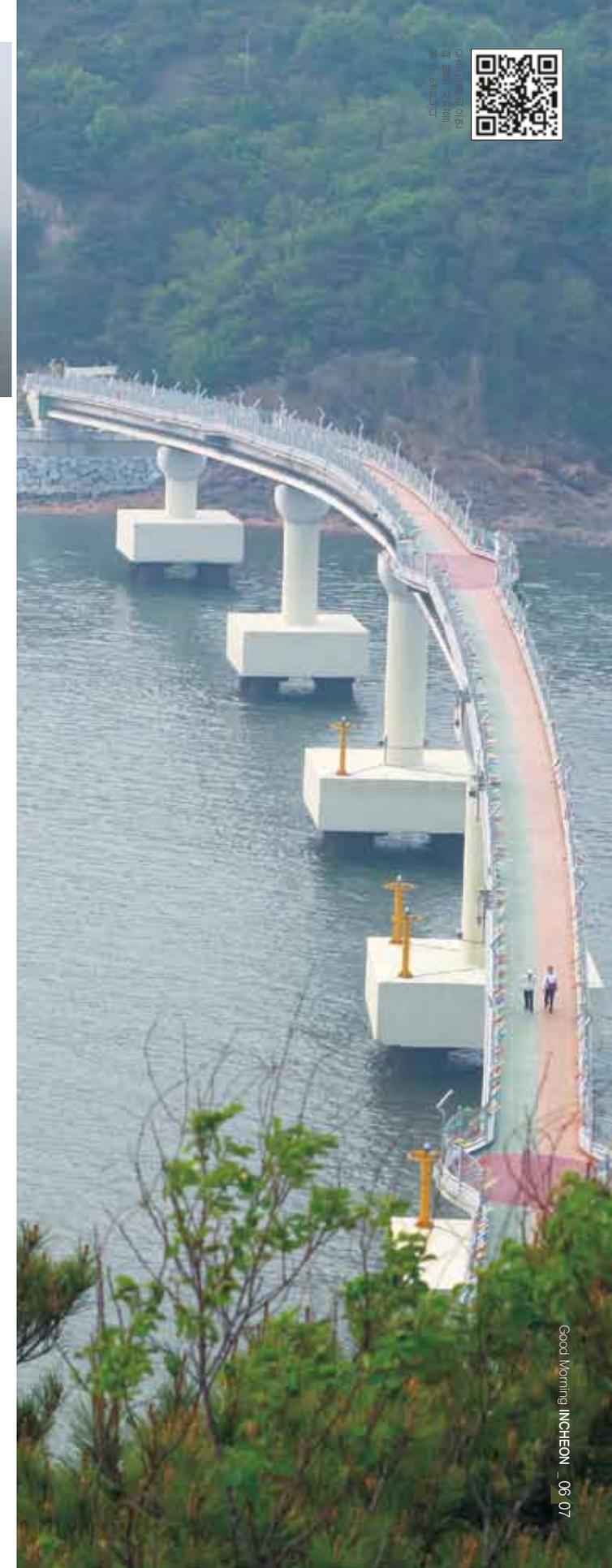
바람은 항상 물보다 먼저 섬으로 들어온다. 다리 위에 올라서니 바람이 먼저 이방인을 맞이한다. 난간에 묶어 놓은 수많은 오색찬란한 만장 깃발이 바람에 춤을 춘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오는 이방객들을 몸으로 열렬히 환영하는 듯 하다.

바다 위를 산책하듯 다리 위를 느릿느릿 걷다보면 어느새 소무의도. 입구에는 초소 같이 생긴 안내사무소가 있다. 1천원을 내야 한다. 입장료라기 보다는 주민 자치적으로 청소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손바닥 만한 데 뭘..." 1천원을 내며 섬 한바퀴 도는 시간을 물었더니 어르신 한분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며 답해 주신다. 그렇다. 이 섬은 뉘 집 밥 때가 언제인가 흔히 알만큼 작다. 소무의도를 이곳 사람들은 '떼무리'라고 하는데 발음상 물에 떠밀려 온 것 같은 느낌을 언뜻 줄 만큼 작은 섬이다. 면적 1.22km<sup>2</sup>이고 해안선 길이가 고작 2.5km이다.

이 꼬마섬이 전국민의 섬이 된 것은 TV의 힘이 크다. 얼마 전 '런닝맨'에 방송되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부쩍 늘었다. 중구 차이나타운을 시작으로 소무의도까지 짜장면을 배달하는 좌충우돌 레이스가 펼쳐졌다. 특별 게스트 박진영과 천정명의 특유의 입담과 재치가 섬 방문의 재미를 더했다.

지금은 30가구가 살지만 오랫동안 무인도였다. 300여 년 전 박동기씨가 처음 딸 3명과 함께 이 섬으로 들어와 개척한 후 유씨 청





년을 데릴사위로 삼으면서 유씨 집성촌이 되었다. 현재 당산 서편에는 유씨 시조묘가 남아 있다.

한때 소무의도 앞바다는 풍어의 바다였다. 6,70년대 까지 서해안에서 겨울철에 그물을 칠 수 있는 유일한 어장이었다. 4km로 떨어진 팔미도 앞까지 '언들'이라 불리는 새우잡이 그물을 쳤다. 동백화(冬白花)라는 새우떼가 동지를 전후해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동안 나타나 하루에 평균 14드럼을 걷어 올렸다. 안강망 어선이 40여척이 있을 정도로 부유했던 섬이었다. 파시가 형성되는 어촌에 언제나 전설처럼 떠도는 그 말, '개가 돈을 물고 다녔다'는 말처럼 당시 여기 개들도 돈을 물고 다녔다.

### 이야기가 널려 있는 섬

현재 소무의도에는 마을이 2개 있다. 서쪽마을은 무의도와 다리로 이어지고 동쪽마을은 인천 시내와 마주보고 있다. 덕분에 이 섬에서는 해가 뜨고 지는 장관을 고개 하나를 넘나들며 모두 감상할 수 있다. 서쪽에서 동쪽마을까지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5분.

얼마 전 이 섬에 누리길이 만들어졌다. 이전에 길이 없었던 게 아니다. 이미 아는 사람들은 세 물을 건너는 수고로움을 감내하며 이 섬에서 자기만의 코스로 호젓하게 바닷길, 산길을 누렸다.

무의바다 누리길은 8구간으로 나뉘었다. 그건 편의상의 구분일 뿐이다. 어느 쪽으로 가든 해안절벽과 기암괴석 등 경관이 뛰어나다. 봉우리에 오르면 서남쪽으로 영흥도, 자월도, 덕적도, 북쪽으로는 강화도, 인천국제공항이 동쪽으로는 팔미도, 월미도, 인천대교, 송도국제도시가 보인다. 맑은 날에는 서울 북한산이 보일 정도다. 누리길을 만들면서 숨겨진 이야기까지 덧입혀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3구간 떼무리길은 소무의도의 자연생태가 그대로 남아 있고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는 당산길이 있다. 4구간 부처깨미길 끝에는 만선과 안전을 기원했던 풍어제를 지냈던 절벽이 있다. 이곳을 내려가면 동쪽 마을이 나온다. 갈고리처럼 생긴 해변은 모래 반, 돌 반이다. 몽여해변길이다. 물이 들어오면 자갈이 흰히 들여다보일 만큼 맑다.

푸짐하게 쌓인 조개들을 밟으며 오른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맨살

처럼 보드라운 돌맹이들이 널린 해변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저 '큰산너머'라 부른다. 옛날 동네 처녀들이 섬 총각 몰래 밤 목욕을 즐겼을 만큼 깊숙하고 오붓하다. 물이 완전히 빠지면 '몽녀'라 불리는 갯바위까지 걸어갈 수 있다.

해안을 조금 더 따라 돌면 짧은 백사장이 나온다. 이름하여 '명사의 해변'. 명사(名士)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컫는다. 박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휴양을 즐겼던 고즈넉한 해변이다. 당시 관련자들은 절대 권력자가 실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전국을 이잡듯 뒤졌을까. 교통, 풍광, 안전 게다가 경호까지.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해변이다.

그 앞에는 '해녀도'라는 무인도가 있다. 자맥질하는 젊은 해녀의 젓가슴처럼 바다 위에 봉긋 솟은 예쁜 모습이다. 소나무가 뻗뻗했던 이 섬은 60년대 중반에 큰 수난을 당했다. 연안부두를 축조하기 위한 무분별한 채석 발파로 곳곳이 움푹 패었고 섬의 절반 가까이 깎여나갔다. 그 섬은 한동안 흉물 같은 몰골로 물위에 떠 있었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바람이 쓰다듬어주고 파도가 어루만져 주면서 상처가 완전히 치유돼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스토리를 따라 돌아보면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원위치. 그래봐야 손목시계는 채 작은 바늘 한바퀴도 돌리지 못했다. 바람이 불면 길을 양보하자. 이 섬에 오면 바람만 서둘러 지나갈 뿐 모든 게 한가하고 여유롭다.



### 소무의 8경

#### 1경 부처깨미(꾸미)

주민들의 만선과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당제를 지냈던 곳

#### 2경 몽여해수욕장

모래와 하얀 굴껍질, 몽돌로 이루어진 250m의 작은 해수욕장

#### 3경 몽여

바닷물이 빠져 나가는 길목에 하루 두번 드러나는 두 개 바닷돌

#### 4경 명사의 해변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이 찾아 휴양을 즐겼던 작은 해변

#### 5경 장군 바위

바위가 장군처럼 보여 해적을 물리쳤다는 설화가 있는 촛대모양 바위

#### 6경 당산 & 안산

소무의도를 이루는 74m(안산), 30m(당산) 두 봉우리 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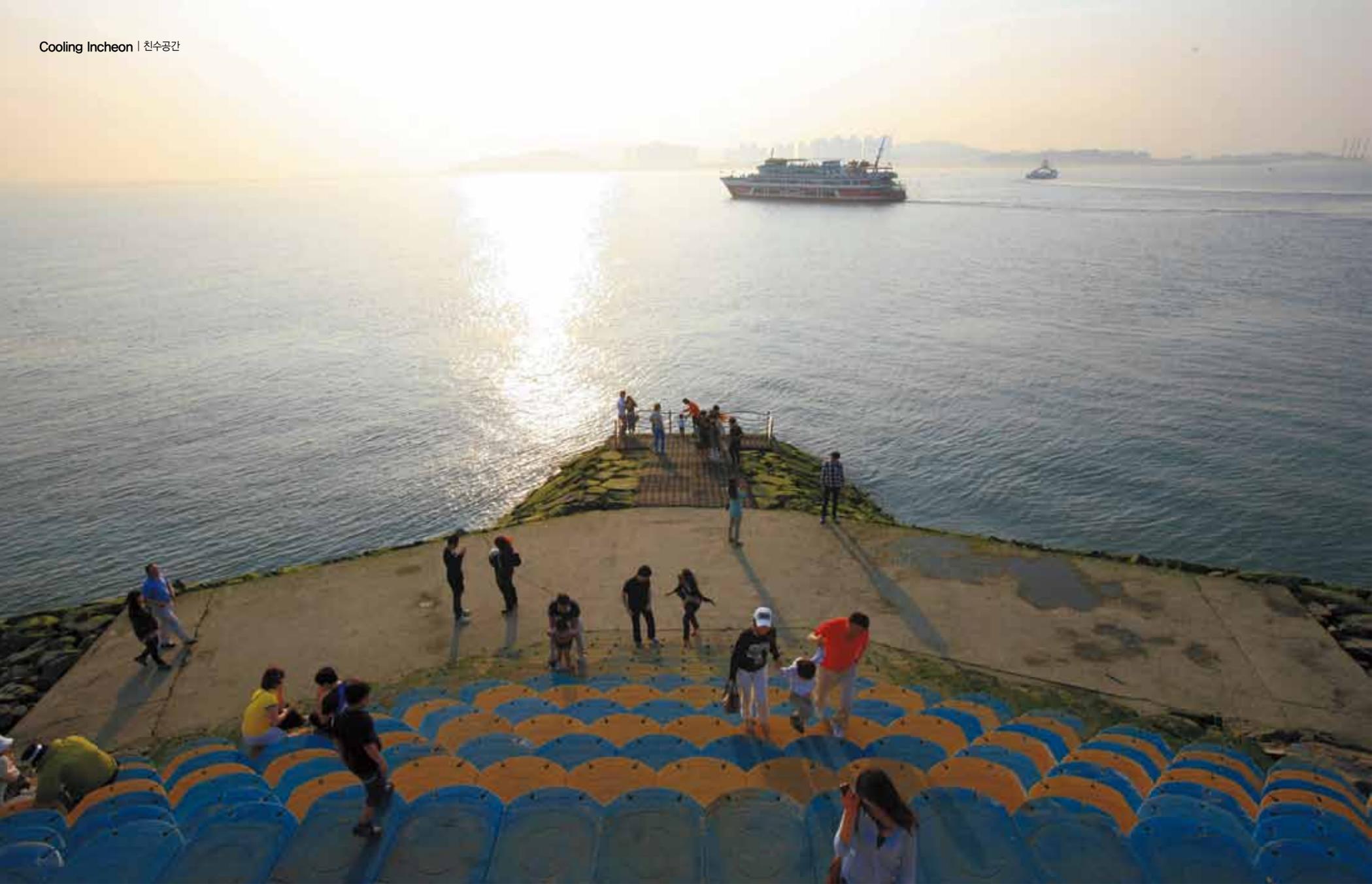
#### 7경 동쪽마을 & 서쪽마을

소소한 풍경이 아름다운 소무의도의 한적한 어촌마을 풍경

#### 8경 소무도의 인도교

떼무리 선착장과 광명항 선착장을 잇는 타원형 모양의 414m 다리

7개 무의바다 누리길을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공항철도가 운영하는 주말 서해바다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서해바다열차는 주말마다 용유 임시역까지 연장 운행한다.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바로 앞 잠진도 선착장에 가서 배를 타고 대무의도를 건너 뒤 마을버스로 광명항까지 간다. 거기서 다리를 건너 소무의도에 들어간다.



### 월미공원 달빛음악분수

얼마전 월미공원에 새로운 명물이 생겼다. 시민들의 귀에 익은 음악에 따라 물줄기가 제 몸을 흔들흔들하는 음악분수다. 요즘 유행하는 걸그룹의 노래부터 신나는 팝송, 마음을 적셔줄 클래식까지 더위로 심신이 지친 시민이 음악으로 어우러진 시원한 물줄기의 향연을 볼 수 있다. 음악분수의 공연은 30분간 이어진다. 화려한 조명속에 비춰진 물줄기는 태양열로 몸이 뜨거워진 시민들에게는 청량제다. 월미도 음악분수는 이곳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월미공원은 음악분수 외에도 시민들이 좀더 편히 쉴 수 있는 다양한 친수공간을 조성했다. 서해안 낙조와 함께 인천대교를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명품 조망 포인트인 낙조전망대, 쉼터인 구름언덕, 수변테크, 조석간만의 차이를 체험하는 조석 체험 시설로 시민과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있다.

또 공원에는 벤치가 있어 시원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벤치에 앉아 모든 것을 품은 듯한 바다의 편안함을 보며 세상살이의 번뇌를 잠시 잊어도 좋을 듯 하다. 월미문화의거리 친수공간의 최대매력은 바다를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바다 바로 코앞에 난간이 설치되어 발끝에서 물을 보며 만져볼 수 있다. 해안가를 따라 독이 연결되어 있어 바닷길을 산책하는 황홀한 낭만을 즐길 수도 있다.

월미문화의거리 친수공간은 앞으로도 2단계, 3단계 워터프론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명실공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월미 음악분수는 평일 세 차례 운영한다. 오후 1시, 3시는 20분간 바닥분수, 저녁 8시에는 30분간 음악분수의 버라이어티한 공연을 볼 수 있다. 주말은 저녁 9시에 한차례 더 음악분수를 튼다.

문의 765-4133

## 물아! 물아! 네계로 가고 싶다

무더위가 성큼 성큼 발을 때는 6월. 점점 뜨거워지는 태양열로 나무와 풀은 질푸른 녹색을 더욱 뽀내지만 사람은 서늘한 그늘이 그림다. 무엇보다 시원한 물이 있는 공간이 간절하다. 인천은 도심에서 바다를 조망하면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끼며 초여름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연안 친수공간이 여럿 있다. 탁 트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위로 지쳐가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 물이 있어 시원하고, 심으로 인해 건강해지는 친수공간에 있노라면 이 여름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 소래·논현 근린공원 4호(해안가공원)

논현동 한화에코메트로 아파트에서 소래포구로 이어지는 약 1km구간은 시민이 사랑하는 친수공간이다. 팬스너머로 갯벌과 바다가 보이고 가끔은 고깃배들이 툭툭거리며 지나간다. 이곳에선 바닷가 새들도 떠나없이 평화롭게 사람과 공존한다. 끝을 알 수 없이 도도히 흐르는 바다를 감상하며 걷고, 자전거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변이 잘 정비되어 있다. 친수공간 중간 중간에 나무테크가 깔려있어 바다를 바라보며 더위로 인한 짜증과 피곤함을 날릴수 있다. 아파트촌과 친수공간이 아주 가까워 걸어서 아이들과 나들이겸 찬바람 쏘 곁해서 나와도 좋다. 주말에는 전동 이륜자전거를 유료로 대여할 수 있다. 여기서 시작한 자전거길은 송도국제도시까지 이어진다. 자전거길이 잘 연결되어 있어 자전거마니아들이 즐겨 타는 코스다.

문의 453-2852



### 경인아라뱃길 정서진

경인아라뱃길 인천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정서진도 물이 있어 여름이 서늘하다. 인천바다와 한강을 잇는 뱃길이 지난 5월 25일 정식개통하면서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더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경인아라뱃길 정서진에는 인공수로 수로가 조성되어 있다. 인공수로 주변은 나무로 만든 수변무대와 산책로, 목교가 있어 주변을 거닐면서 물을 볼 수 있다. 물위에 조성된 목교에서는 잔잔히 흐르는 물길을 보면서 서해바다의 광활한 풍경, 태양이 주황빛으로 떨어지는 멋진 풍경 감상할 수 있다.

수변공간은 시민이 지루하지 않게 주위를 구경할 수 있도록 아기자기한 즐길 거리를 곳곳에 배치했다. 인공수로에는 실물모양의 황포돛배를 그대로 재현해 아이들의 관심을 끈다. 물길따라 거닐다 보면 차그마한 인공섬 '아라뱃섬'을 만난다. 친수광장 수변테크, 숲속쉼터, 해넘이 전망대, 노을언덕스탠드가 이곳의 볼거리다.

정서진 친수공간 주변은 큰건물이 없고, 막힌 곳 없이 탁 트여 있어 숨이 턱턱 막혀 오는 무더위를 식히는 장소로 그만이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지없이 시원하다. 바다를 보면서 두 발로 달리는 자전거길, 해안산책로도 마음을 상쾌하게 열어주는 체험코스다. 도심보다 기온이 1도는 낮을 듯 하다.

문의 1899-3650

### 연안부두 해양광장

인천에서 섬으로 나가고 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연안여객터미널. 이곳은 인천이 바다의 도시이자 항구도시임을 확연히 느끼게 한다. 연안여객터미널 부근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연안부두 해양광장 친수공간이 있다.

연안부두 해양광장 친수공간은 밤이면 시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시줄 분수가 시원하게 물을 내뿜어 볼거리를 더한다. 야외무대가 조성되어 있어 소소한 공연이 무대에 올려지며 바다도시를 상징하듯 돌의자는 계와 불가사리 모양으로 꾸며 더욱 정감 어렵다.

친수공간에 조성된 계단에 앉으면 밤바다의 아득하고 정겨운 풍경이 마음을 푸근하게 적신다. 촘촘히 정박해 있는 배들 사이로 불빛에 반사된 바닷물결은 더위를 잊게하고 마음과 몸에 힘을 북돋운다.

친수공간 한쪽은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 시원함을 더하며 해양광장전망대에 오르면 연안부두는 물론 저 멀리 서해바다의 멋진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해양광장은 지난 2011년 10월 샹트페테르부르크 광장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에 패한 후 순국한 순양함 '바라크호' 선원들의 영웅적 희생을 기념하는 추모비가 있어 러시아 관광객들의 필수코스다. 이곳에서는 팔미도와 경인아라뱃길 인천여객터미널을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문의 763-8145





# 수인선, 기적<sup>汽笛</sup> 다시 울리다

1937년 8월 여름 그리고 다시 시작된 2012년 6월 여름. 좁은 선로 위를 뒹굴거리던 꼬마기차 수인선이 최신형 전동열차로 다시 태어났다. 송도에서 오이도 구간을 시작으로 복선전철로 새롭게 개통하는 수인선.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넘어 미래로, 다시 세상을 가로지른다.

글. 정경숙\_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 역사의 철로 위 달린 수인선

반세기 이상 우리네 삶의 눈물과 웃음을 실어 나르던 수인선이 다시 세상을 달린다. 경부선 수원역에서 분기해 서쪽 강화만 연안의 소래, 남동, 군자 등을 거쳐 인천 송도에 이르던 협궤철도. 칙칙뾰뾰 흔들흔들 덜컹덜컹... 철로 폭은 76.2cm로 일반 철로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그 위를 달리는 객차도 승객들의 숨결이 닿을 만큼 좁았다. 열차가 심하게 흔들릴 때면 마주보는 사람과 무릎이 닿기도 했다. 덩치가 적다보니 힘이 달리어 고개를 오를 때 손님이 내려서 걷거나 열차를 밀어야 했던 일은,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추억이 됐다. 수인선 협궤열차는 1935년 일제가 착공해 1937년 8월 6일 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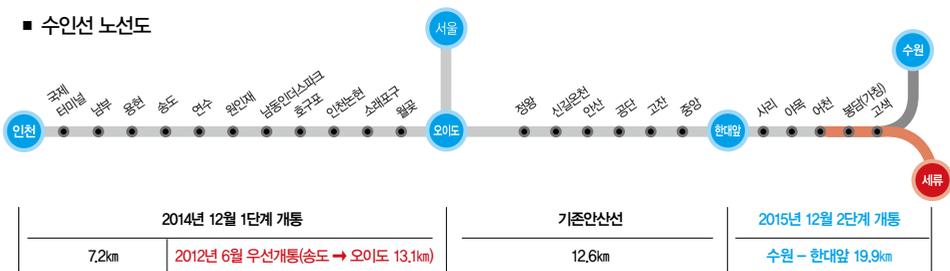
을 시작했다. 당시 일제는 철도망을 확충해 한반도를 침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수인선이었다. 이 철도는 경기 서부에서 나는 곡물과 소금을 인천항으로 실어 일본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이 협궤열차는 일제가 물러난 후에도 반세기 넘도록 인천과 경기도를 잇는 서민들의 발 노릇을 했다. 보따리를 바리바리 싣은 촌로와 달큰한 냄새를 풍기는 취객, 까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영겨 인생의 철로 위를 달렸다. 하지만 수인선은 60년대 이후 국도가 생기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3년 7월 인천역과 송도 구간이 끊겼고, 1994년 9월 송도에서 한양대 안산캠퍼스



협궤열차 시절 옛 수인선 풍경



1. 수인선 협궤열차가 다니던 소래철교  
2, 3 수인선 복선전철의 우선 개통을 앞둔 시운전 현장  
4, 5 수인선 차량 밖으로 보이는 소래포구, 송기천



를 잇는 구간이 폐쇄됐다. 이어 1995년 12월 한대앞에서 수원 구간이 끊기면서, 수인선은 운행한 지 5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다.

### 새 수인선 타고 송도에서 오이도까지

수인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달 30일 복선전철사업 가운데 송도에서 오이도 13.1km 구간을 우선 개통하면서,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개통 전 시운전 현장. 송도를 출발한 열차가 물 잔 제비처럼 내치 달린다. 달경달경 좁은 철도를 달리던 꼬마기차가 최신행 전동차가 되어 짙짙 뺨은 선로 위를 달린다. 개통한 구간은 송도, 연수, 원인재, 남동인더스파크, 호구포, 인천논현, 소래포구, 월곶, 오이도다. 철길 따라 원인재에서 남동인더스파크로 가는 길, 창밖으로 송기천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회색빛 풍경을 지우고 두 눈 가득 마음 가득 푸르름을 채워본다. 이어 호구포에서 소래포구로

향하는 사이 논현신도시가 시야에 들어온다. 잘 가꿔진 아파트단지 그 사이 보이는 오봉산과 공원을 내려다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소래포구로 가는 길에 펼쳐지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다. 햇살이 비추어 이드르르한 갯벌과 그 사이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하는 배, 한가로이 하늘을 나는 갈매기가 어우러져 그림을 완성한다.

### 오이도까지 70분에서 22분

수인선 복선전철은 총 52.8km로 이 가운데 전철 안산선 오이도에서 한대앞 12.6km 구간은 이미 운행 중이고, 인천에서 송도 7.2km 구간은 오는 2014년에, 한대앞에서 수원역 19.9km 구간은 오는 2015년 말에 각각 개통한다. 수인선 복선전철이 완전 개통하면 인천에서 수원까지 64분이 걸린다.

우선 개통한 수인선 열차는 110km 속도로, 출퇴근시간대에는 10분, 평상시간대에는 15분 간격으로 하루 평균 160회 운행한다. 수인선을 타고 안산이나 과천 방향으로 가려면 오이도역에서 4호

선으로 환승하고, 인천 방향으로 가려면 원인재역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으로 환승하면 된다. 이로써 송도에서 오이도까지 버스로 70분 가량 걸렸던 시간이 22분으로 줄어, 남동구와 연수구 주민의 교통편의가 높아졌다.

시운전 현장에서 만난 안산승무사무소의 박창규 기관사는 “수인선 협궤열차가 사라진 후 수도권 광역전철사업의 일환으로 송도에서 오이도 구간 수인선을 우선 개통했다. 철도 기관사로서 자부심이 크다”며 수인선 우선 개통에 의미를 부여했다.

옛 수인선이 모습을 감춘 지 17년이 흐른 지금, 아낙들이 곡식과 생선을 펴고 흥정을 벌이던 송도역 앞에는 6차선 도로가 뚫렸다. 그리고 느릿느릿 움직이던 꼬마기차는 날렵하게 달리는 최신행 전동열차로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칙칙푹푹 흔들흔들 달경달경, 인생의 철로 위를 지나던 그 옛날 수인선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을 달리고 있다.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획전별전 수인선, 두 번째 안녕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 수인선과의 두 번째 만남을 기념해, 올해 첫 기획전별전 〈수인선, 두 번째 안녕〉을 7월 1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수인선을 둘러싼 공간의 역사성과 사회성부터 개인의 추억까지 돌아보는 의미로 기획됐다. 전시내용은 수인선의 탄생과 기계적 메커니즘, 역이 위치한 공간의 장소적 특징, 시대에 따른 기능변화, 가치를 이용했던 소시민의 일상, 폐선 후 수인선과 주변의 변화상 등이다. 또 주요 전시자료는 수인선 레일, 침목을 비롯해 각종 부속구와 표지등, 승차권, 시간표, 노선도, 역표지판, 송도역 서류, 인천항·염전 관련 자료들이다. 1980년대 송도역장과 1995년 수인선의 마지막 기관사 등 철도인과 1950~90년대 수인선을 이용했던 개인들의 소중한 자료와 인터뷰도 주목된다. 오랜 기간 수인선을 주제로 작업 활동을 펼친 김용수·이수연·최용백 작가의 사진작품도 출품될 예정이다.

전시기간 : 5월 1일(화)~7월 1일(일)  
 전시장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문의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과 440-6734, museum, incheon.go.kr



## 갯벌, 포구, 염전 그리고 바다

소래역사관이 수인선 복선전철의 우선 개통에 맞춰 이달 말 남동구 논현동에 문을 연다. 칙칙뚝뚝 꼬마기차가 다니고 하얀 소금밭이 펼쳐진, 지금은 존재하지 않거나 잡힐 듯 말듯 사라져가는 소래의 옛 정취가 마음을 붙잡는다.

글. 정경숙\_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 칙칙뚝뚝 꼬마기차 다니던 소래포구

소래는 살아 있다. 갯 잡아 올린 생명들이 파닥파닥 살아 숨 쉬고 짠 내 가득한 시장은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만선한 배가 포구로 돌아올 때면 갈매기 떼가 '끼룩끼룩~' 반기는 소리를 내며 하늘을 선회한다.

그 포구 바다 끝에는 지하철 4호선과 이어졌다 다시 수원으로 향하는 수인선 전철이 다니는 교각이 있다. 그리고 그 옆에 폭이 좁은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1995년을 마지막으로 추억 속으로 사라진 협궤열차가 다니던 소래철교다.

협궤열차는 지금 자취를 감췄지만, 수인선은 이달 30일을 시작으

로 순차적으로 개통해 오는 2015년이면 인천과 수원을 하나로 잇는다. 협궤열차를 비롯해 염전, 포구 등 기나긴 세월 쌓아 온 소래역사의 편린들이 역사관에 곱게 담겨 눈앞에 펼쳐진다.

### 소래의 옛 정취를 고스란히

소래역사관이 수인선 복선전철의 우선 개통에 맞춰 이달 말 남동구 논현동에 문을 연다. 이곳은 수인선 협궤열차를 비롯해 포구, 염전 등 지금 존재하지 않거나 잡힐 듯 말듯 사라져가는 소래의 옛 정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역사관은 연면적 1천424㎡에 지상 2층 규모로 제1·제2전시장을 비

롯해 영상실과 학예실 등을 갖추었다. 그 옛날 협궤열차가 다니고 하얀 소금밭이 펼쳐진 풍경이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다. 아쉬운 점은 전시물 대부분이 모형이라는 점인데, 현재 구에서 지역주민과 교류하며 유물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역사관의 김춘식 학예사는 "시민이 수인선과 포구, 염전을 가까이 두고 조성된 역사관을 둘러보며 그 옛날 소래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기 바란다"며 개관소감을 밝혔다. 실제로도 수인선과 얽힌 옛 추억을 떠올리며 역사관의 개관소식에 가슴 설레어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 소래여행을 즐겁게 할, 또 하나의 명소

여행은 2층에 있는 제1전시장에서 시작된다. 인천항에서 수원까지 기차로 50원에 달리던 시절, 시계바늘을 돌려 오래된 역 대합실로 들어선다. 이어 시공간을 건너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면, 수많은 생명을 품은 소래갯벌과 우리네 삶을 실고 달리던 수인선이 영상과 실사모형으로 눈앞에 펼쳐진다. 이어 1층으로 내려가 제2

전시장에 들어서면, 하얗게 핀 소금밭과 그 옆에서 소금을 긁어 모으는 염부의 모습이 보인다. 그 옆에는 소래포구가 생동감 넘치는 실사모형으로 꾸며져 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여행은 수인선 협궤열차에 탑승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소래포구 어시장에 싱싱한 생선을 사러 왔다가 혹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이나 소래철교로 나들이를 나왔다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명소가 소래에 또 하나 생겼다. 소래역사관에서 칙칙뚝뚝 꼬마기차를 타고 그 때 그 시절 아름다운 추억 속으로 달려보자.

- **관람 시간** 10:00사~18:00(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료** 개관 초기 한시적 무료입장
- **찾아가는 길** 소래역 주변, 소래포구 어시장 인근(남동구 아암대로 1605)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20, 21, 27, 754번 버스를 이용한다.
- **주변 볼거리** 소래포구 어시장,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철도, 장도포대지 등
- **문의** 소래역사관 453-5630



정태성 휴케어 이사

지은정 시민

안중식 인하대병원 국제협력팀장

박주희 인천의료관광재단 사무국장



## 헬스케어 도시 명성... 외국환자 유치

인천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핵심동력인 공항, 항만, 경제자유지역을 품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해 도시경쟁력도 높다. 의료관광사업은 이런 인프라에 기반한다. 의료기관 JCI인증 받은 병원이 두곳이나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약회사, 연구소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최적의 입지 조건이다. 인천의료관광사업은 인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인천은 작년 7월 인천의료관광재단이 출범했고, 본격적인 의료관광사업에 뛰어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인천의 부가가치를 높일 핵심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의료관광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방향과 비전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토크는 지난 5월 16일 인천의료관광재단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안영우\_자유사진가

토론  
참석자

박주희 인천의료관광재단 사무국장, 안중식 인하대병원 국제협력팀장,  
정태성 휴케어 이사, 지은정 시민



### 인천, 바이오산업, IT기술 결합 최적한 입지 조건

**박주희** 인천시가 의료관광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데 인천에서 의료관광 사업을 시작하는 의미를 꼽자면 무엇일까요?

**정태성** 우리회사는 의료관광 컨설팅 회사임에도 전문회사의 입지만 갖고 외국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후진국은 가능하나 공산국이나 선진국은 공공기관을 통해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중국 인민병원과 사업을 성사하는데 1년이 걸렸는데 공인된 재단이 사업을 하면 사업기간도 단축되고 성과도 높을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들이 의료관광 업무를 하면 순환보직으로 연속성이 떨어지는 데 재단에서 하게되면 더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것으로 봅니다.

**지은정** 인천의료관광재단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는 잘 몰랐지만 재단에서 외국 의료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면 송도에 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박주희** 인천은 국제병원 이슈도 있고, 바이오 전진기지로 도약

하고 있기에 앞으로 이 분야는 비전이 있습니다. 의료기술은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분야이고 이런 혜택을 받고자 외국인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면, 외화도 늘고 지역경제도 좋아질 것입니다.



**안중식** 병원업계에서는 인천의료관광재단이 갖는 의미가 큼니다. 다이내마이트같은 폭발력입니다. 5~6년 전쯤 생겼으면 인하대병원이 청도 성양구에 인하국제의료센터를 오픈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돈을 사람이 가서 가지고 나와야 했어요. 갖고 오다 걸리면 따로 신고하고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어요. 우즈백, 천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해도 어려웠는데 재단이 활성화되면 정보를 받아서 병원이 쉽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을 위한 플러스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지은정** 재단은 일반인들이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합니다. 일반인도 챙겨 주고, 힘이 되줄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요새는 외국에 나가는 시민도 많은데, 외국에서 어려움을 겪을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역할을 위해선 홍보가 제일 중요하지요.

**박주희** 의료재단은 외국의 환자, 외국에서 한국의 의료기술에 관심있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나가있는 교포가 700만이고 그들도 우리의 고객이기때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인천의 의료관광 차별화 전략은

**박주희** 인천이 의료관광분야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어떤 부분을 더 뛰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별화 전략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태성**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기관이나 단체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하바로스크 등 유행에 따라 한번에 지역을 여기저기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하고 지역을 특화했으면 합니다. 텐진의 인구가 1천 3백만으로 서울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텐진만 집중해도 서울의 인구가 다 오는 것이기에 재단이 그런부분에 마케팅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안중식** 러시아쪽 사람들은 혈관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병원도 심혈관센터를 운영하고 혈관센터를 작년엔 새로 오픈했습니다. 길병원도 뇌혈관 분야는 조장희 박사님이 있고, 혈관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혈관질환 분야의 강점을 재단과 연계해서 마케팅할 계획입니다. 재단이 의료관광 마케팅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전략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집중하고 있는 데 장기적으로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검증된 시장인 블라디보스톡이나 하바로스크도 전략적으로 계속 케어해야 합니다.

**박주희** 재단이 바라보는 지역은 중국, 러시아 등으로 3시간 거리내 에 있는 인구 백만명 이상되는 도시입니다. 그쪽은 인천이 잘하는 심혈관 질환 잠재고객이 많습니다. 이 도시들은 경제는 성장세에 있지만 의료수준은 낙후한 편이지요. 마케팅 환경이 좋은 천진, 우즈베키스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 병원과 재단이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로

**박주희** 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재단에 바라는 부분과 좀더 치중해서 할 부분에 대해 말씀바랍니다.

**안중식** 최근 길병원도 외국인 의료관광에 집중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인하대는 오래전 부터 의료관광사업을 해왔구요. 병원끼리 서로 경쟁하면 의료의 질, 시설의 수준이 높아지고 지역도 발전합니다. 앞으로 송도국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도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기에 의료재단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입니다. 재단이 끌어주고 밀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태성**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된 기관입니다. 인천의료관광 사업은 마치 삼성에 제일기획이 있는 것처럼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규제를 풀고 인천브랜드를 최대화하는 마케팅 기획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최고의 의료관광 국가입니다. 세계의 돈 많은 암환자들은 독일가서 수술받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뒤셀도르프 의료기기박람회도 열리고요.

재단이 인천의 바이오와 병원을 연결한 바이오 박람회를 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총체적 마케팅 역할이 필요합니다.

**박주희** 인천에는 다문화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들 중엔 외국어도 잘하고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코디네이터로 교육을 시킨 후 외국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맡길 계획입니다. 일자리도 늘리고 재취업의 길도 열리는 것이지요.

## 의료관광 성공위한 로드맵 구축

**박주희** 의료관광재단이 만들어지고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안중만** 심혈관 질환 분야가 지역선도 의료기술에 선정된 것 입니다. 의료관광이 성공하려면 일반관광 인프라 구축이 잘 돼야 하는 데 의료재단이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관광은 잘 구축된 80%의 일반관광 위에 20%를 의료관광이 언저 가는 것입니다. 재단이 인천의 좋은 인프라를 잘 활용해 미래지향적으로 잘 이끄리라 생각합니다.



토크를 하면서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정리가 됐다. 의료관광분야에서 인천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게 많다. 이곳은 외국인인 첫발을 내딛는 도시다. 재단의 역량에 따라 의료관광사업의 범주가 달라질 것이다. <정태성>

천진가는 국제선은 굉장히 분주하다. 플라이트 타임만 1시간이다. 시간으로만 치자면 국내 지방도시보다 가깝다. 그곳에 빨리 파이프 라인을 놓아 외국환자를 유치해야 한다. 승용차 수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환자유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박주희>

만나서 반갑다. 재단은 앞으로 해야할 일이 굉장히 많다. 재단이 인천의 의료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 <안중식>

의료쪽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측면에서 시민의 이야기도 들으며 재단을 운영하면, 지역시민에게도 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은정>



“에이~ 싸게 해줘요~”, “기분이다. 하나는 거저 가지고 가요~” 벼룩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지만 돈 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가 폴폴 난다. 누구나 상인이 되고 손님이 되어 흥정을 하고 덤으로 살뜰한 정을 퍼준다. 단순히 물건이 아닌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곳, 여기서는 지갑이 얇아질수록 마음은 두둑이 채워진다.

글. 정경숙\_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홍승훈\_자유사진가



### 살림도, 지구도 살리는 '다다살림 벼룩시장'

사람냄새 흠뻑 배인 동네, 배다리. 이곳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버려지는 것들이 새 생명을 입고 다시 세상의 빛을 본다. '다다살림 벼룩시장'은 동구 창영동과 배다리 일대 주민과 작은 상점의 주인이 마음을 모아 꾸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동네시장이다. 여기서는 세월의 곱절이 자욱이 쌓인 책과 개인 소장품을 비롯해 정성스레 손끝에서 빚어낸 수공예품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간다.

벼룩시장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안 쓰는 물건 한두 개 정도 가지고 나와 무인판매대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거나, 아예 자리를 잡고 나만의 작은 가게를 꾸릴 수도 있다. 500원, 1천원 흥정하는 사이 이웃간의 정도 새록새록 쌓여간다. 꼭 물건을 사고팔지 않아도 된다. 한편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며 한가로이 오후를 누려도 좋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이웃에게 즐거움을 주면 더 좋다. 다다살림 벼룩시장에는 거창하지는 않지만 소중한 삶의 기쁨이 샘솟는다.

Tip 도원역 3번 출구에서 동인천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면 배다리 산업도로 풀삼공터. 벼룩시장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참가하려면 미리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신청하고 혹 놓치더라도 당일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7389-0857, cafe.daum.net/dasallim

## 물건 아닌 '사랑'을 팝니다!



### 좋은 사람들의 보물찾기, 송도 굿마켓

화창한 초여름 송도센트럴파크에서 작지만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이른 아침부터 저마다 사연이 담긴 보따리를 들고 삼삼오오 공원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얼굴 가득 핀 미소는 햇살보다 빛난다.

송도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주관하는 '굿마켓(Good Market)'은 '친환경도시 송도에서 착한 소비문화를 일으키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커널워크를 시작으로 올해 송도센트럴파크에서 1만5천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어서 오세요~ 싸요, 싸~”,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 수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판매부스 여기저기에서 흥정소리가 들려온다. 320팀에 이르는 참가자들은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부터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아일랜드에서 온 번 킬리안씨는 “집 차고 벼룩시장인 개러지 세일을 중





중 열었기 때문에 많이 팔 자신 있다”며 파이팅을 외쳤다.  
 굿마켓은 단순한 베품시장이 아닌, 공연과 이벤트가 어우러진 축제로도 손색이 없다. 지난 마켓에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록밴드와 채드워국제학교 학생들의 힙합공연 등이 열려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사랑과 나눔의 현장도 이어졌다. 인천 기아대책본부의 부스에서는 공정무역상품을 판매하고 캄보디아 아이들을 돕는 행사를 열어 마음을 훈훈했다. 또 장이 끝난 후 판매 참가비와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모아 기아대책본부에 전하며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었다.

**Tip** 지난 4. 5월에 열렸던 굿마켓은 이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도 시민을 찾아가는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판매자로 동참하고 싶다면 송도IBD 블로그(songdoibd.tistory.com) 또는 송도IBD 페이스북(facebook.com/songdoibd)을 통해 지원신청한다. 문의 NSIC 02-501-4611

### 행복한 엄마들이 여는 '강화 행복한 베품시장'

살 빼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청바지, 둘째아이에게 물려주면 좋을 법한 장난감... 집안을 정리하다보면 당장 쓰지는 않는 데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이 곳곳에 있다. 베품시장에서는 이런 오래된 물건이 묵은 먼지를 툭툭 털고 새 빛을 본다.

강화 행복한 베품시장. 소중하게 입던 옷과 착용하던 액세서리 그리고 직접 기른 화분까지, 저마다의 사연이 담긴 물건을 들고 강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든다.

참가자들 가운데 고사리 손으로 갖고 놀던 장난감을 가지고 나온 아이들에게 시선이 향한다. “단돈 천원이에요~ 싸요~싸~” 일일 사장으로 변해 능숙하게 물건을 파는 모습에 엄마는 살포시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픈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물건은, 새 것 같은 품질에 확 낮은 가격으로 날개 돋힌 듯 팔려 나간다. 지갑을 연 사람들도 뜻밖의 황제에 싱글벙글이다.

물건구경, 사람구경하는 재미에 운 좋으면 필요한 물건을 착한가격에 건질 수도 있는 알짜장터. 그 곳에 소소한 행복이 있다.

**Tip** 강화 행복한 베품시장은 강화문화체육센터 광장에서 오는 10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열린다. 강화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강화군외제21 932-6900, ganghwa21.or.kr



### 내게는 애물! 이웃에겐 보물 '나눔장터'

장을 보기 위해 굳이 멀리까지 발품을 팔 필요 없다. 주말이면 내 집 앞, 우리 동네가 장터로 변하기 때문이다. 시와 구는 '자원을 순환하고 판매수익으로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나눔장터'를 열고 있다. 장에서 싸고 좋은 물건을 사고 이웃과 정을 나누다보면 어느새 양팔이 무거워진다. 기분 좋게 바람이 부는 주말 오후,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가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우리시가 주최하고 인천YWCA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2005년 시작해 올해로 벌써 일곱 번째를 맞았다.

나눔장터는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도서·잡화·의류 등 매회 다른 테마를 잡아 진행한다. 재활용품 리폼하기, 전통놀이 체험 등 즐길거리가 많아 가족의 나들이장으로도 손색이 없다.

나눔장터에서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도 있다. 판매한 수익금의 10%는 기부금으로 모아 난치병 어린이를 비롯한 이웃을 돕는 뜻 깊은 일에 쓴다. 각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나눔장터를 연다. 또 연수구는 오는 10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구청 상징광장에서, 계양구는 이달 중으로 구청 남측광장에서 나눔장터를 연다. 또 동구는 올해 10월까지 8월을 제외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화도진공원에서 베품시장을 연다.

**Tip**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는 10월까지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열린다. 나눔장터 홈페이지(happynam.com)에 참가신청을 한다. 각 구에서 열리는 나눔장터에 참여하려면 각 구청의 청소과에 문의한다. 문의 인천YWCA 424-0524, 시 청소과 440-3565



#### '톡톡' 튀는 특별한 베품시장

돈 냄새보다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베품시장. 요즘에는 타깃으로 잡아 차별화를 외치는 시장도 많다. 그 이름처럼 '톡톡' 튀는 베품시장을 소개한다.

- **예술의 향기 흐르는 베품시장**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지역 작가 및 입주 작가와 함께 플랫폼 창고세일을 연다.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참여 작가들의 드로잉, 조각, 화첩 등 작품과 물감, 물통, 이젤, 카메라 등이 전시 판매된다. 문의 760-1000

- **정부 물품 사고파는 장터** 중구 신흥동3가에 있는 정부물품재활용센터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사무기기와 가구 등을 수리해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장터가 열린다. 시중 중고물품보다 30~5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문의 888-7282

- **중고물품, 이웃사랑으로 꽃피다** 남구클린문화센터는 관내 가정, 업소, 기업 등에서 나오는 가구, 전자제품을 비롯해 생활 잡화를 모아 깨끗이 수리해,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무상으로 지원한다. 문의 876-7282





# “이상 기온, 초록별 아픈 증거래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이 회자되고 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북극곰들의 서식처가 점점 사라지고,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에서 아열대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구의 이상기온은 인간에게도 재앙이다. 아이들에게 지구의 소중함과 온난화에 대처하는 교육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부평 갈산동에 문을 연 기후변화체험관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꾸며 환경과 지구사랑 의식을 담백 불어넣는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홍승훈\_차우사진가



## 부평 갈산배수펌프장 증축한 친환경 공간

기후변화체험관은 부평 갈산동 갈산배수펌프장을 증축해 만든 친환경적인 공간이다. 생명을 생각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체험하는 공간인 만큼 주변 환경과 조화하고,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공해 발생 요인을 최대한 줄였다.

체험관은 1층 주제영상관, 지구온난화관, 2층 기후변화체험실, 굴포누리교실, 녹색기차, 홍수예방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 오면 제일먼저 들리는 곳이 주제영상관이다. 지구의 이상기온 현상,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한 영상을 아이들의 흥미를 끌수 있게 만들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만들어진 쉽고 재미있는 영상이다. 아이들은 지구온난화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새긴다.

지구온난화관에서는 지구의 낮과 밤, 날씨와 자연재해, 구름과 태풍, 해수면 상승 등의 자연현상과 과학의 흐름을 배우는 4D 영상물을 상영한다. 이곳은 아이들이 지구와 우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비로운 우주공간의 모습을 갖췄다.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 야기되는 이상기후 현상을 그림과 함께 볼 수 있고, 해수면과 빙하의 변화, 엘니뇨, 라니냐, 사막화 현상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했다.



### 개똥이 생태교실

#### 장지뱀 보러 굴포천 갈까요

“굴포천에 사는 장지뱀이에요. 장지뱀이 아기를 가졌나봐요. 배가 불룩하지요.” “야 신기하다. 나도 한번 볼래.” 어른 손바닥길에 만한 작은 장지뱀을 아이들은 마냥 신기했다. 기후변화체험관에서는 굴포천의 생태환경을 공부하고 주변 생물살이를 체험하는 개똥이 체험교실을 열고 있다. 생태교실은 예약한 학교, 단체에 한해 이뤄진다. 진행은 전문생태 교육을 받은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한다.

교사는 아이들과 본격적인 생태탐험을 나서기 전 굴포천의 환경과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한다. 굴포천을 서식처로 삼고 있는 곤충, 물고기, 벌레, 식물 등에 대해 설명하면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이날은 계양구 화전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들이 개똥이 생태교실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생태탐험 선생님과 함께 굴포천을 둘러보며 청개구리와 참개구리가 정말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수초 사이사이를 구석구석 살폈다. 선생님은 개구리는 변온동물이기에 찬물속에 손을 담근 후 만져야 한다고 알려준다. 아이들은 굴포천에 사는 올챙이, 무당벌레, 꽃게거미, 실잠자리를 관찰했다. 수초사이에서 선생님은 장지뱀 암수를 잡아 보여줬다. 장지뱀은 위기상황이 오면 꼬리를 끊고 도망 간다고 알려준다.

개똥이 생태교실은 1시간 가량 진행된다. 선생님과 굴포천을 둘러본 뒤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유수지 주변을 둘러보고, 이곳에 사는 생물들을 직접 조사하고 체험하며 자연을 즐긴다.

개똥이 생태교실은 오전, 오후 한차례씩 열리고, 미리 예약해야 참여할 수 있다. 문의 509-3900

### 사라지는 동식물... 환경의 소중한 배워

지구온난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로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무엇인지를 공부한 아이들은 2층 기후변화체험실에서 지구온난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온난화로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생생한 영상으로 만난다. 멸종위기 동식물은 인천에 서식지가 있는 맹꽂이, 저어새, 점박이물범, 땅귀개, 깽깽이풀, 대청부채의 모습이다.

체험관은 지구온난화로 무더운 여름을 느낄 수 있도록 천장에 온풍기를 설치해 아이들이 잠시나마 무더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히 느끼도록 했으며, 쓰나미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 현상을 사진으로 꾸며놓았다. 겨울체험 코너는 북극의 뽕뽕어는 듯한 극한추위를 체험하는 얼음동굴, 폴라병과 쓰레기를 밟고 있는 펭귄과 북극곰 모습을 통해 환경오염으로 고통당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 전기는 소중한 자산 아껴쓰는 마음 실천

'두더지를 잡아라' 게임을 응용한 'CO<sub>2</sub>를 잡아라'는 인기코너

다. 두더지처럼 올라오는 이산화탄소를 유발하는 제품들을 두드리며 녹색지구 실천을 다짐한다.

홍수예방체험 코너는 물레방아의 원리를 배우며 모여있던 배수펌프장의 물이 빠져나가는 작동과정을 아이들이 일일이 만지고, 돌려보며 홍수예방법을 체험한다.

녹색기차 코너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바퀴를 발로 열심히 굴려야 LED게이지를 올려 전기를 얻을 수 있고, 그 힘으로 자전거가 굴러가는 구조다. 아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바퀴를 굴리지만 게이지는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녹색기차를 통해 전기의 소중함과 자원절약 정신을 배운다. 기후변화체험관을 다 둘러본 아이들은 자신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굳은 다짐을 한다. “나무를 심고,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나는 지구를 위해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타겠다”, “이산화탄소를 유발하는 컴퓨터를 조금만 사용하겠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등으로 의지를 다진다. 환경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보존하는 길이 활짝 열린다.

Tip 입장료는 무료. 매주 월요일 휴관. 전화 509-3900





#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詩를 쓰다

글. 정경숙\_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_자유사진가



그는 자신이 시 쓰는 경찰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는 보통의 시인에게는 연상되지 않는 합리적이고 아무진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현명하게 줄타기하는 사람 같다고나 할까. 이는 꼭 그가 경찰이라는 선입견 때문만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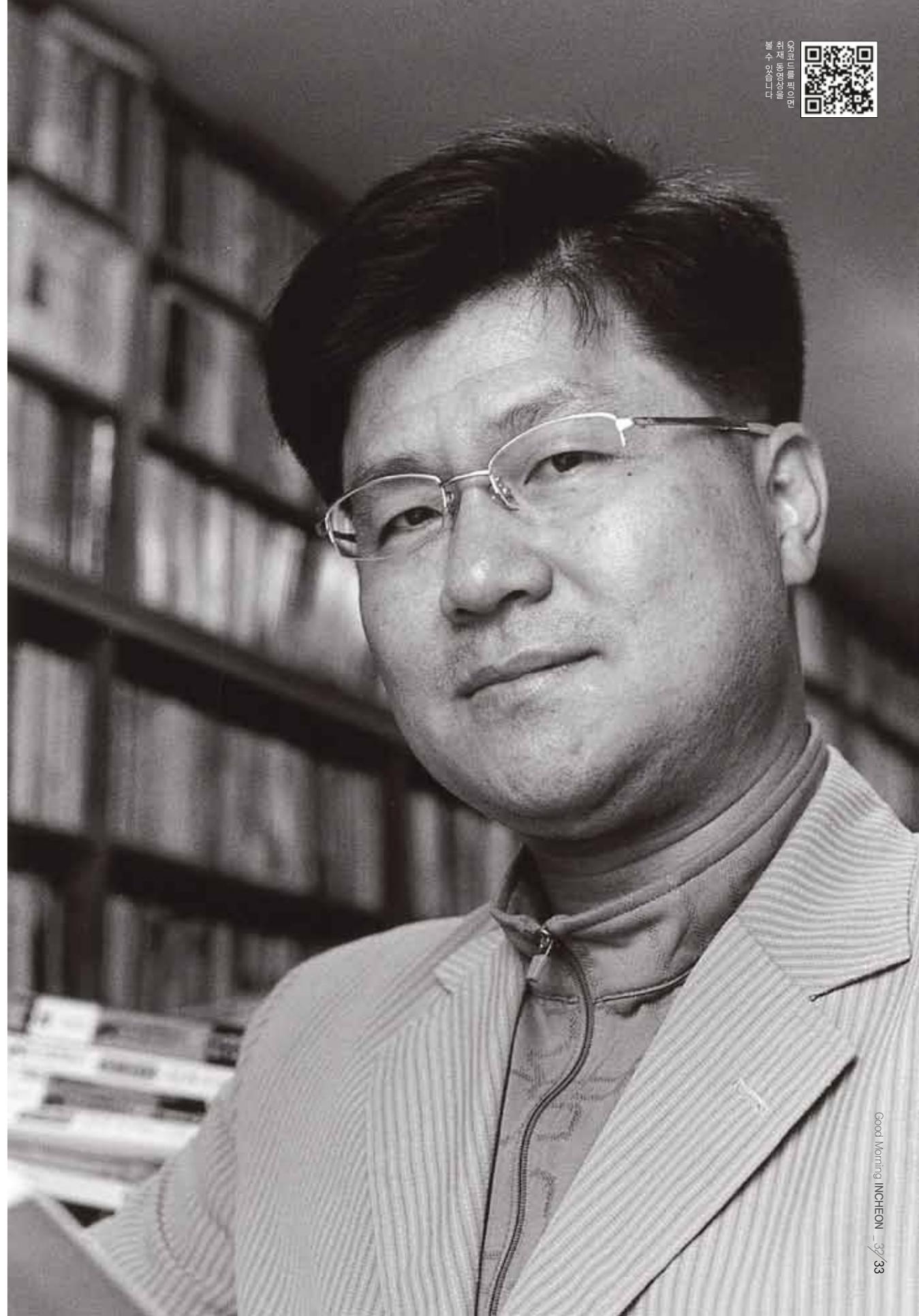
인천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는 전병호(46) 경위는 제15회 공무원 문예대전에서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으며 세상의 시선을 받았다. 이번 문예대전에는 시, 수필, 동화 등 7개 부문에 총 2천5편의 작품이 응모했으며 그 가운데 전 경위의 시 '로드킬'이 대상, 동화 '미술이와 큰술이'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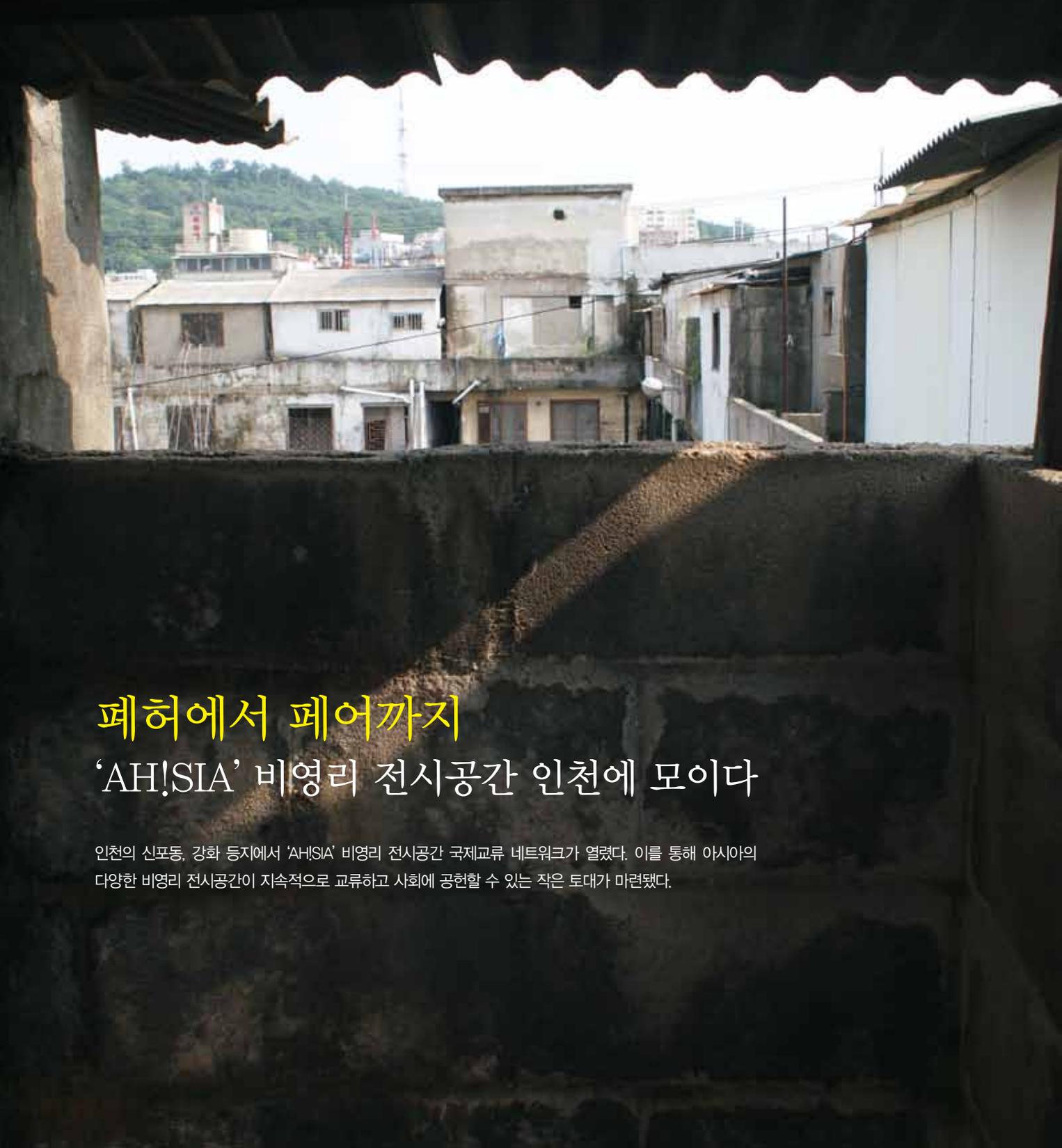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죽음들이 / 살점을 발라 부고(訃告)장을 쓴다 / 한 바퀴, / 한 바퀴 돌 적마다 부서지는 슬픈 기억들... / 아이들이 잠들고, 무서리 꽃으로 피어나던 새벽녘 / 자유공원 팔각정 아래 / 귀가시간을 놓친 어느 노숙자의 죽음처럼 / 돌아가지 못한 사체 위로 / 별빛이 흩어지고 안개가 내린다...' <로드 킬> 중에서.

'로드킬은 도로 위에서 처참히 사그라지는 동물들을 죽어서도 갈 곳 없는 노숙자와 오버랩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품이다. 관념적인 표현을 구사하는 능력과 글 매무새가 상당히 능숙하다. 일상에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감대를 끌어내는 관조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경찰이라는 본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작가로서 돋보이는 그의 역량은 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그 해답은 무조건 쓰고 또 쓰는 피나는 노력에 있다.

"한편의 작품이 나오기까지 무던히도 글을 쓰고 다듬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승화할지 고심하지요. '로드킬'도 몇 년에 걸쳐 쓰고 또 쓰기를 반복한 작품입니다."

그간의 행적을 거슬러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된다.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민원인을 상대하고 신문에 투고를 하면서 글 쓰는 데 흥미를 붙인 그는, 지난 2005년 가천길대학 문예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수업에 들어갔다. 2년을 꼬박 작장과 학교를 오가며 새벽밥을 먹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행복했다. 지금도 그는 승진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독서실에 다니면서도 끝까지 펜을 놓지 않고 있다. 경찰로서 작가로서 부단히 노력하며 삶의 지표 세우는, 아무진 그다. 처음 음성으로 전해 온 이미지가 틀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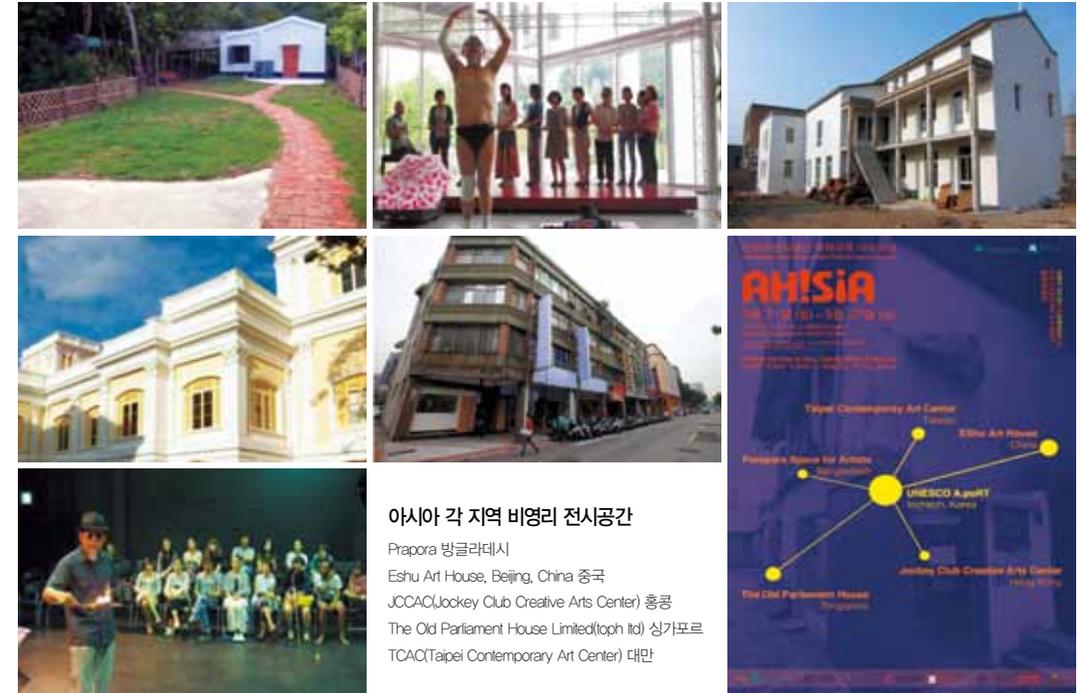




## 폐허에서 페어까지

### ‘AH!SIA’ 비영리 전시공간 인천에 모이다

인천의 신포동, 강화 등지에서 ‘AH!SIA’ 비영리 전시공간 국제교류 네트워크가 열렸다. 이를 통해 아시아의 다양한 비영리 전시공간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작은 토대가 마련됐다.



#### 아시아 각 지역 비영리 전시공간

- Prapora 방글라데시
- Eshu Art House, Beijing, China 중국
- JCCAC(Jockey Club Creative Arts Center) 홍콩
- The Old Parliament House Limited(toph ltd) 싱가포르
- TCAC(Taipei Contemporary Art Center) 대만

‘AH!SIA’ 비영리 전시공간 국제교류 네트워크가 지난달 21일에서 27일까지 인천의 신포동, 강화 등지에서 열렸다.

유네스코 에이.포트와 남구, 강화미술협회의 주최로 이번 행사는 ‘아시아 지형도 수정하기, 변화하는 아시아 창의성(International Networking of Non-profit Art Spaces in Asia, Altering the Map of Asia, Altering Asian Creativity)’을 주제로 아시아의 비영리 공간이 모여 진행했다. 이 행사는 아시아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전시기획을 위한 창작공간 사이의 협력과 각 공간의 아카이브 공유를 목적으로 아카이브전과 함께 컨퍼런스로 열렸다. 이 기간 아시아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홍콩(JCCAC), 싱가포르(toph ltd.), 대만(TCAC), 중국(Eshu Art House), 방글라데시(Porapara)의 비영리전시공간 대표들이 유네스코 에이.포트를 중심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컨퍼런스 첫째 날인 지난달 23일에는 인천 유네스코 컨퍼런스룸에서 비영리 전시 공간의 설립 목적, 전략, 사례, 운영지침, 문화예술교육 자료, 다국적 네트워크의 의미를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다. 또 둘째 날인 지난달 24일에는 약 300여 명의 예술가들이 머무르며 창작활동을 하는 강화도에서 지역관청과 예술 단체 간의 협력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AH!SIA’ 네트워크에 초청된 각국의 비영리 전시공간 대표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화도의 행정적 실정과 자연환경에 적합한 문화, 전시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마지막 날은 ‘폐허에서 페어까지(PEHUH(Ruin) to the Fair)’를 주제로 제물포 시장 내에 폐허가 된 건물 공터에서, 국내외 재건축 및 구성된 비영리 전시 공간들의 예술 창작 운영 프로그램 사례들을 소개하며 폐허가 된 공간의 대안적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적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컨퍼런스와 함께 성능경 작가와 유노미 낫밴드(You Know me Not)의 폐공간에 대한 퍼포먼스 또한 펼쳐졌다. 이는 부동적이며 침체된 공간에 역동적인 가능성을 열어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유네스코 에이.포트 또한 다양한 비영리전시공간의 사례를 수렴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 지역 사회문화에 지속적으로 공헌하고 교류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인천 지역의 다른 소규모 전시공간의 활로를 찾고 나아가 아시아권 비영리 전시공간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물꼬를 텃다.

# 6월 공연·전시 Calendar

SUN	MON	TUE	WEN	THU	FRI	SAT		
			<p>극단 MIR '미드나이트 포징마차' 부평문화사랑방 저녁 8시 / 1만5천원, 학생 8천원 ☎ 505-5995</p>	<p>황금토끼-금요예술무대 &lt;황금 선율의 추억여행&g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2</p>	<p>극단 MIR '미드나이트 포징마차'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3시, 저녁 6시 1만5천원, 학생 8천원 ☎ 505-5995</p>	<p>2012팍스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전석 5천원 ☎ 인천음악협회 873-7772</p>	<p>1 제1회 유보리제지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 유보리 010-8496-5614</p>	<p>2 뮤지컬 &lt;슈퍼영웅 보로&g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30분 R석 3만5천원, S석 3만원 ☎ 청라아트 1566-6551</p>
<p>3 뮤지컬 &lt;슈퍼영웅 보로&g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30분 R석 3만5천원, S석 3만원 ☎ 청라아트 1566-6551</p> <p>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나들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 인솔주니어현악합주단외 888-0807</p> <p>일요국악상설 "열쑤" 타악집단 함울소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국악협회 875-4644</p>	<p>4 극단 MIR '미드나이트 포징마차'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3시 / 1만5천원, 학생 8천원 ☎ 505-5995</p>	<p>5 제15회 음악과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무료 ☎ 인천예술고등학교 433-3175</p> <p>에버그린여성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일반 1만원 ☎ 에버그린여성합창단 501-6770</p> <p>극단 MIR '미드나이트 포징마차' 부평문화사랑방 저녁 8시 / 1만5천원, 학생 8천원 ☎ 505-5995</p>	<p>6 극단 MIR '미드나이트 포징마차' 부평문화사랑방 저녁 8시 / 1만5천원, 학생 8천원 ☎ 505-5995</p> <p>마당놀이 세익스피어 '십이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R석 3만원, S석 2만5천원 ☎ 500-2000</p>	<p>7 극단 MIR '미드나이트 포징마차' 부평문화사랑방 저녁 8시 / 1만5천원, 학생 8천원 ☎ 505-5995</p>	<p>8 &lt;춤는도사-인천&gt;개막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전석 1만원 ☎ 인천시립무용단 420-2788</p> <p>황금토끼-금요예술무대 &lt;대중가수와 함께하는 가요 콘서트&g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2</p>	<p>9 이은결 매직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7만원, S석 6만원 ☎ 청라아트 1566-6551</p> <p>뮤지컬 누 버블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4시 전석 2만원 ☎ 에이프로덕션 010-4365-5454</p>		
<p>10 이은결 매직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7만원, S석 6만원 ☎ 청라아트 1566-6551</p> <p>뮤지컬 누 버블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원 ☎ 에이프로덕션 010-4365-5454</p> <p>일요국악상설 "열쑤" 소리꾼 김경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국악협회 875-4644</p>	<p>11 극단 MIR '미드나이트 포징마차'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3시 / 1만5천원, 학생 8천원 ☎ 505-5995</p>	<p>12 인천여성문화회관합창단 제17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 무료초대 ☎ 인천여성문화회관합창단 518-3827</p> <p>플루트가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전석 1만원 ☎ 인천플루트콰이어 888-0807</p>	<p>13 커피콘서트4 (Sweet Jazz with Prelude)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원 ☎ 인천&amp;아츠 1588-2341</p>	<p>14 제15회 무용과정기발표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전석 무료 ☎ 인천예술고등학교 433-3176</p>	<p>15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18회정기연주회 &lt;위대한 작곡가 집중탐구 II&g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인천시립교향악단 1588-2341</p> <p>예술무대 '그림(The '林') 풍유록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 3천원 ☎ 505-5995</p>	<p>16 볼우정에우듬기 나눔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 인천가톨릭합창단 010-5049-5621</p> <p>황금토끼-토요상설무대 인천시립합창단의 (우리)의 가곡과 민요 '신토불이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44</p> <p>라벤드'Cloud 9,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배리재출 오후 4시 / 6천원, 학생 무료 ☎ 760-3457</p>		
<p>17 뮤지컬 비보이와 함께하는 '신데렐라의 story'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1만5천원 ☎ 극단남프 3474-4620</p> <p>일요국악상설 "열쑤" 인천국악협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국악협회 875-4644</p>	<p>18 극단남프 3474-4620</p>	<p>19 인천YWCA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전석 무료 ☎ 인천YWCA 424-0524</p>	<p>20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p>	<p>21 &lt;춤는도사-인천&gt; 즉흥춤 페스티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전석 5천원 ☎ 인천시립무용단 420-2788</p>	<p>22 황금토끼-금요예술무대 &lt;헬로우 매직 콘서트&g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2</p>	<p>23 액션라이브쇼 &lt;파워레인저 미라클포스&g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R석 4만5천원, S석 3만5천원, A석 2만5천원 ☎ 오름기획 258-9054</p> <p>&lt;춤는도사-인천&gt; 즉흥춤페스티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시립무용단 420-2788</p>		
<p>24 액션라이브쇼 &lt;파워레인저 미라클포스&g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R석 4만5천원, S석 3만5천원, A석 2만5천원 ☎ 오름기획 031)258-9054</p> <p>제12회 인천국악대제전 전국국악 경연대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 무료초대 ☎ 인천국악협회 875-4644</p>	<p>25 제62주년 6.25전쟁 기념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9시30분 / 초대 ☎ 인천시사회복지봉사과, 인천시 재향군인회 441-2651</p> <p>일요국악상설 "열쑤" 명창 최근수, 명창 최은호 관공식(전지바이올린의 가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국악협회 875-4644</p>	<p>26 음악동창회 '여고시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3천원 ☎ 505-5995</p>	<p>27 뮤지컬 매직팔레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 전석 1만5천원(단체 1만원) ☎ 한국예술경영협회 811-0550</p>	<p>28 제14회 이웃사랑열린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R석 2만원, S석 1만원 ☎ 남동구사랑나누기추진위원회 453-2501</p> <p>뮤지컬 매직팔레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1만5천원(단체 1만원) ☎ 한국예술경영협회 811-0550</p>	<p>29 황금토끼-금요예술무대 &lt;다이어의 재미있는 아카펠라&g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2</p> <p>뮤지컬 '김중옥찾기'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6월 30일(토) 오후 3시, 7시 R석 3만원, S석 2만5천원 ☎ 500-2000</p> <p>예술무대 인천여성문화회관 여성합창단 부평문화사랑방 / 3천원 ☎ 505-5995</p>	<p>30 전대동화음악교육극 &lt;해와 달이 된 오누이&g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1만5천원 ☎ TK컬처 070-8773-3733</p> <p>황금토끼-토요상설무대 인천시립무용단의 &lt;웃음피터&g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44</p> <p>뮤지컬 '김중옥찾기'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6월 30일(토) 오후 3시, 7시 R석 3만원, S석 2만5천원 ☎ 500-2000</p>		

## 기획 공연 미하일 플레트네프 & 러시아인 내셔널 오케스트라



보수적인 러시아 음악계에서 "모스크바의 어떤 오케스트라도 이들의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평을 끌어내는 러시아인 내셔널 오케스트라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며 지휘자이기도 한 미하일 플레트네프에 의해 창단된 러시아 첫 민간 오케스트라이다. 최고 명성을 자랑하던 레닌그라드 필과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등의 악장, 수석급 연주자들이 대거 이적한 러시아인 내셔널 오케스트라는 단원이 모두 독주자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 올해 내한하는 오케스트라 중 꼭 봐야할 연주로 손꼽힌다.

**일시** 6월 20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 기획전시 한국대중음악 걸 그룹사 : 저고리시스터에서 소녀시대까지 소원을 말해봐

한국대중음악 걸 그룹사는 1930년대 저고리시스터즈에서부터 한국 걸그룹의 70여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다. 한국 걸 그룹사 70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저고리시스터>의 일본 공연 전단지화와 공연 사진부터 아시아 최초로 미국에 진출한 <김시스터즈>의 미국, 한국, 대만 동시 발매음반과 활동사진 등 최초 공개할 수 있는 진귀한 자료들로 채워졌다. 여기에 리드보컬 나미의 진귀한 어린이시절 극장소 포스터, 핑클의 해외제작 우표까지 관람할 수 있어 관람의 재미와 함께 모든 세대들에게 '추억과 발견'이라는 놓치지 힘든 흥미를 끈다.

**일시** 5월 4일(금) ~ 6월 17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티켓** 무료 문의 500-2000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18회 정기연주회 <독일의 베토벤, 그는 누구인가> 한명의 작곡가를 집중 조명하는 인천시립교향악단 '작곡가 집중 탐구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는 금년새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악성(樂聖) 베토벤의 음악 세계에 깊이 있게 다가가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해외에서 먼저 알아본 피아니스트 정은주, 음악계의 유망주 바이올리니스트 정상희, 카리스마 넘치는 첼리스트 전준승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 C장조」는 각각 뛰어난 연주자를 필요로 하는 곡으로 연주회에서 접하기 매우 힘든 곡 중 하나다. 금년새 지휘자의 재미있는 해설을 곁들여 쉽지만 심도 깊게 작곡가의 생애와 음악을 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일시** 6월 15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뮤지컬 '김중옥 찾기'**  
연인과 팔짱끼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뮤지컬 '김중옥 찾기'가 인천관광객을 찾아온다. 이련하고 로맨틱하고 설레이는 '첫사랑'이란 감정을 가장 잘 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김중옥 찾기'는 데이트 필수 관광 뮤지컬로 손꼽히고 있다. 사랑에 대한 달콤한 대사, 아름다운 시를 읊는 듯한 뮤지컬 넘버, 깨알 같은 웃음, 완성도 높은 스토리는 남녀 관객 모두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며 '쉽고, 재미있'는 뮤지컬로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일시** 6월 29일(금) 오후 8시 / 6월 30일(토) 오후 3시, 7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5천원 **문의** 500-2000

인천&아츠 공연 커피콘서트IV <Sweet Jazz with Prelude >  
6월엔 워트 있는 네 남자와의 로맨틱한 데이트가 시작된다. 2003년 버클리 음대 재즈 퍼포먼스 학사 재학생들로 구성, 졸업생이 된 현재까지 총 6장의 앨범을 발표한 재즈밴드 '프렐류드'가 커피콘서트를 찾아온다. 거침없는 에너지와 재능으로 사랑받고 있는 그들이 '난해하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재즈에 대한 몇 가지 선입견을 단순히 깨뜨리며 다채롭고 편안하게 그리고 흥분감마저 안겨주는 연주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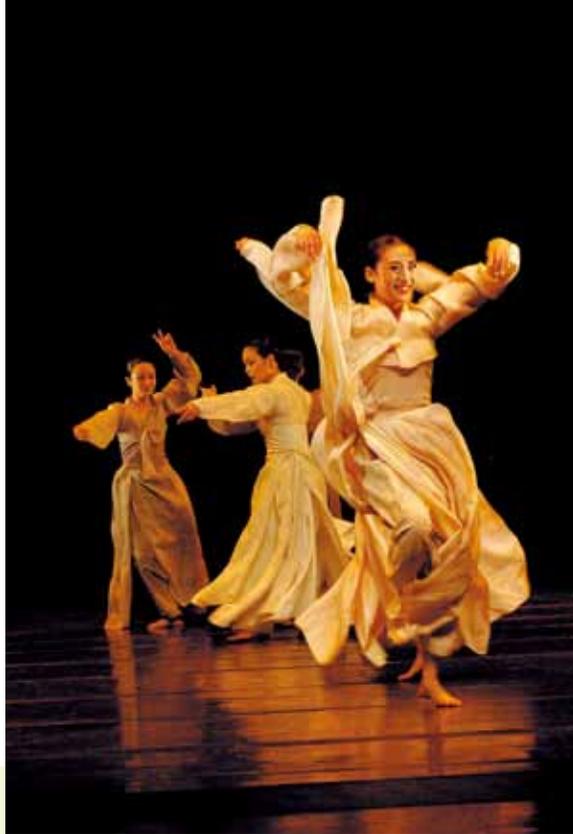
**일시** 6월 13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6월 9일

- ~ 17일 한국대중음악 걸 그룹사 : 저고리시스터에서 소녀시대까지 /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 1일~ 7일 영규명 작품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1일~ 7일 인천남구미술협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1일~ 7일 명노선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7일~13일 인천 노 6 작 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 8일~14일 제2회 천현태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8일~14일 제9회 바첼아카데미화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8일~14일 제10회 인·예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14일~22일 인천-조각을 말하다(인천조형작가협회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 15일~21일 제15회 관광기념품 공모전 응모작 전시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15일~21일 제8회 한·중수채화국제교류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15일~21일 제12회 수형회정기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21일~7월 8일 입주작가 창작지원 프로젝트(우주다방) /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
- 19일~7월 8일 입주작가 창작지원 프로젝트(예술가의 생일) / 인천아트플랫폼 H동 프로젝트룸
- 22일~28일 인천한국화대제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22일~28일 인천서예예술연구회정기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29일~31일 제15회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29일~31일 제16회 박호식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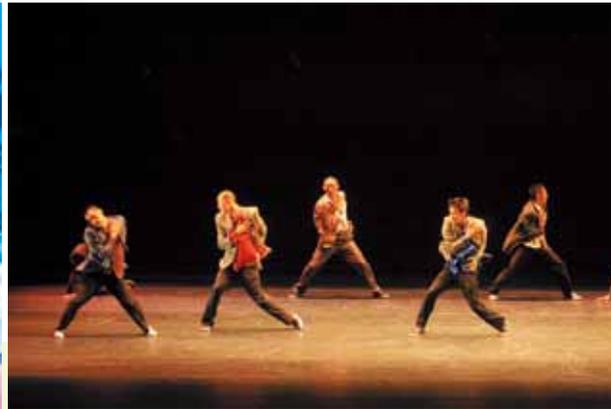
# 6월, '춤바람 났네'

6월 한 달간 인천에서는 선물같이 기분 좋은 공연이 풍성하게 열린다. 멋지고 화려한 공연장이 아니어도 좋다. 음악이 있고, 흥겨운 몸짓이 있고, 그곳에 즐길 줄 아는 관객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가장 멋진 무대다. 6월, 인천은 그야말로 춤추는 도시로 변모한다.



● **개막공연 '축제'**에 초점을 두어 축제의 시작을 알리듯 재미있고 유쾌한 작품 위주로 구성되었다. 시립무용단의 전통적인 작품을 비롯하여 인천에서 활약하는 현대무용가, 창작 발레 등 축제 분위기에 어울리는 군무위주의 신나는 작품이 공연될 예정이다.

6월 8일(금)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릴레이댄스** 접할 기회가 없어서, 또는 왠지 어려울 것 같아서 춤을 멀리했던 사람들을 위한 릴레이 댄스는 이제 <춤추는 도시-인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무용단체들의 공연이 쉼 없이 지속되는 동안 관객들은 길거리 공연이나 난장처럼 자유롭게 왕래하며 '항상 곁에 있는 춤'을 느낄 수 있다.

6월 9일(토)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 **특별기획공연 I - 우수단체초청공연**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안무가 및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무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인천시립무용단 단원 중 안무자적 역량이 있는 단원의 작품을 선정하여 수준 높은 무대를 꾸민다.

6월 15일(금)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울룩볼록 퍼즐플레이**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볼록들을 쌓고 부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움직임들이 펼쳐진다. 관객과 함께하는 놀이형식의 공연으로 어느 사이 무용과 친숙해지게 하는 즐거운 시간이다.

6월 9일(토) 오후 5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6월 16일(토) 오후 6시, 월미도 공원 분수광장

6월 17일(일) 오후 5시, 월미도 공원 분수광장

● **밀착춤** 월미도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무용 작품을 선보이며 친숙한 무용단으로 다가서려는 기획의도로 신설되었다.

6월 16일(토) 오후 7시, 17일(일) 오후 3시, 월미도 야외무대

● **너울너울춤바라기** 수도권산 달동네 박물관 앞 무대는 인천시민들이 과거 시간을 거슬러 보며 따뜻한 마음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시민들과 함께 인천시립무용단의 의지를 담았다.

6월 10일(일) 오후 7시 30분, 수도권산 달동네박물관 야외무대

● **지하철에 춤을 싣고** 유동인구가 많은 부평역을 시작으로 총 6회의 공연을 통해 지나가는 발걸음을 잡아 무용과 예술의 향기를 스며들게 하는 공연이다.

6월 19일(화)~21일(금) 오후 3시, 6시 30분



● **특별기획공연 II - 즉흥춤 페스티벌** 춤의 표현성을 극대화하여 즉흥적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무대상황 속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감성과 움직임의 정수를 선보이는 축제

속의 축제다. 즉흥춤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다.

6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특별기획공연 III - 인천을 빛낸 차세대무용가전** 차세대 무용가전은 젊은 무용수들의 작품 발표의 장이자 미래 인천과 한국의 춤 문화를 이끌어갈 무용가들을 응원하는 기획이다. 어린아이들부터 준프로, 인천시립무용단의 신입단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예술가들과의 만남과 열정이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6월 23일(토)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폐막공연-춤 춤 춤 한마당** <춤추는 도시-인천>의 폐막을 기념하는 춤 단체들의 즐거운 축제 한마당. 합창에서 컨템포리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공연으로 축제의 흥겨운 마지막을 장식한다.

6월 23일(토)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춤꾼과 일반인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예술을 향유하기위해 모인 인천의 춤 축제<춤추는 도시-인천>은 열린 무대, 열린 공연을 지향하며 관객과 함께 하려는 춤꾼들이 한마음으로 모이는 자리다.

6월 한 달 동안 인천 전역에서 펼쳐지는 충성한 춤 공연은 '항상 곁에 있는 춤'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춤 공연이 가지는 매력을 한껏 선사한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월미도, 수도권산 달동네 박물관 야외무대를 비롯해 지하철역과 공원 등 인천 전역에서 쉼 없이 펼쳐지는 공연을 통해 관객과 하나가 되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춤추는 도시-인천>은 인천에 산재한 무용인들과의 다양한 협업 및 공연을 통해 인천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제5회 <춤추는 도시-인천>은 '스밌'이라는 부제와 더불어 인천 전역으로 전파되는 공연, 다양한 장소와 관객을 위한 새로운 접근 등 신선한 기획과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으로 관객을 춤의 세계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열린 무대, 열린 공연을 지향하는 <춤추는 도시-인천> 댄스페스티벌은 경제도약을 넘어 문화도약을 꿈꾸는 인천의 새로운 이름이 된다.



기간 6월 8일(금)~23일(토)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야외광장, 월미도특설무대, 월미도분수광장, 부평역사 내, 수도권산박물관 야외무대 등  
 관람료 • 개막공연, 특별공연 I - 우수단체 레퍼토리 : 1만원  
 • 특별공연 II - 즉흥춤 페스티벌 : 5천원  
 • 특별공연 III - 인천을 빛낸 차세대 무용가전 : 5천원  
 • 야외공연장 릴레이댄스, 밀착춤(월미도야외무대), 너울너울춤바라기(수도국산박물관 야외무대) : 무료  
 ※ 학생단체 50%, 단체 및 컬처리더회원, 무용교실 회원 30% 할인  
 예매 및 문의 ☎ 엔티켓 1588-2341, 인천시립무용단 ☎420-2788

# Vision Incheon



## 인천의 비전과 가치를 팝니다

우리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희망 찬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묘책으로 외자유치·투자를 내세웠다. 그리고 미국 5대도시를 방문, 영종지구에 복합리조트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송도국제도시에 앰코테크놀로지를 유치하는 등 값진 성과를 냈다. 우리는 인천의 비전과 가치를 믿는다. 그렇기에 그 어떤 여건에도 굽히지 않고 언제나 당당히 내일을 열 것이다.

글. 정경숙\_본지편집위원



1 몰 오브 코리아(Mall of Korea) 조감도 2 앰코테크놀러지와 투자 MOU 체결

### 미국 5개 도시 돌며 투자유치 총력

송영길 시장은 인천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의 5대 도시인 뉴욕, 필라델피아, 신시내티, 피닉스, 시애틀을 방문했다.

송 시장은 “재정이 어렵지만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미국을 방문해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번 미국 방문이 인천을 알리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송 시장은 먼저 지난달 14일 뉴욕 맨해튼에서 운북레저단지의 미 단시티 사업 세일즈를 시작으로 아트센터 분양 관련 설명회와 부동산 투자자 모임 등에 참석해 인천의 비전과 투자가치를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송 시장은 “인천에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할 경우 연간 3천8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국제공항과 항만 등 탁월한 인프라와 I-Tower 15개층 무상임대 조건 등을 놓고 볼 때 인천이 GCF를 유치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송도신도시 아트센터의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 “서울 강남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통해 오늘날을 이루었다”, “채드워국 제학교, 달튼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학교와 글로벌캠퍼스를 갖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제적인 교육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 영종에 세계적인 쇼핑몰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에 외국의 대형 쇼핑몰 기업을 유치해 복합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는 성과도 돋보인다. 송 시장은 지난달 15일 뉴욕에서, 캐나다에 본사를 둔 트리플 파이브(Triple Five)사와 영종도에 세계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몰 오브 코리아(Mall of Korea)’를 조성하기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영종 하늘도시에 66만㎡ 규모로 개발할 몰 오브 코리아는 쇼핑몰과 호텔, 리조트 컨벤션센터를 한데 묶은 복합단지. 사업비만 외국인 직접투자 5억 달러를 포함해 우리 돈으로 1조5천억원이 넘는다. 오는 7월 즈음 송도국제도시에 현지법인을 100% 외국투자법인으로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발협약 체결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송 시장은 또 같은 날 뉴욕 맨해튼 스테인웨이홀에서 열린 맨하튼 체임버 뮤직페스티벌 ‘인천의 날’ 행사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만나 투자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송 시장은 행사에서 “GCF 사무국이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또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투자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 총장은 “GCF 사무국이 송도국

제도시에 꼭 유치되길 바란다”며, “인천은 한국을 방문할 때 첫발을 딛는 곳으로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천을 치켜세웠다.

### 앰코, 송도에 10억 달러 투자

또 하나의 월척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 앰코테크놀로지(Amkor Technology, Inc.)의 인천 유치다. 우리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18일, 앰코와 송도국제도시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18만6천㎡ 규모의 반도체 공장과 글로벌 R&D센터를 짓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앰코는 먼저 1단계로 6천억원을 투입해 R&D센터와 생산라인을 갖추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2019년까지 2단계 생산라인을 완공해 연간 250억개 이상의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를 서비스할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시는 이번 투자유치가 연평균 10억 달러의 수출증대와 3천~5천명 이상의 직접고용, 반도체 선진 기술 발전 및 우수인재 확보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 시장도 “송도국제도시가 첨단 미래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 Civic News

## 인천경제자유구역 FDI 실적 국내 FEZ 중 '최고'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작년도 FDI(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포함한 3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총액의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IFEZ의 지난해 FDI 실적은 총 5억4천112만달러로,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 FDI 유치총액(10억900만달러)의 53.6%에 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총 2만4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11년에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동아제약의 입주 등으로 바이오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해외 앵커기업들의 입주도 잇따랐다. 청라국제도시 내 달튼외국인학교의 개교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 입주한 한국뉴욕주립대 설립 승인 및 미국 일리노이대 등 4개 대학과의 MOU 체결도 지난해 1년 사이에 이뤄졌다.

경제청은 발전자문위원회와 민관합동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개발과 투자유치 자문, 외국인 투자 활성화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각종 특수시책 추진 등에 힘입은 성과다.

한편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지난해 성과와 관련, "국내 대기업과 외국투자기업들의 IFEZ 입주가 잇따르고 FDI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둬 IFEZ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다 활발한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112

## 송 시장, 청라지구로 관사 이전

우리는 오는 7월 시장 관사를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에서 수도권매립지 인근 청라국제도시 아파트로 이전한다.

이는 청라국제도시 인근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는 청라지구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해 매립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청라 경제자유구역의 위상을 높여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시는 구월동 관사가 6월 중 전세 계약이 끝남에 따라 7월 중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장의 관사를 이전하는 것은 시장이 청라지구의 문제와 쓰레기매립지 환경 문제를 직접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의 : 시 재산관리과 ☎440-5022

## 단수되면 언제 어디서나 '121'

우리는 6월부터 효율적인 전화응대를 위한 상수도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민원처리시스템은 단수 등 비상 시에 19명의 전화상담 요원을 30명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 ARS시스템을 활용한 단수안내를 실시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게 된다.

단수 신고 시 기존에는 해당 단수 지역사업소별로 전화응대가 이뤄졌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121 접수로 모든 사업소에서 동시에 전화응대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녹취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고객들이 자동이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수도사업소나 거래 은행까지 방문해 신청했으나, 이번 녹취시스템의 도입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한 통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인천상수도사업본부



## 9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우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주택가 노상주차장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 인근 주민(거주자, 상근자 등)에게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다.

시는 1단계로 야간시간대(오후 7시~다음날 오전 1시) 이용료로 월 1만원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또 공급 위주의 주차정책에서 탈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등 단계별 거주자 우선주차제 목표를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

문의 : 시 교통관리과 ☎440-3924



## '날아라 인천' 퀴즈쇼에서 1억원 상금

상금 1억원이 걸린 한 퀴즈쇼에 인천시 대표로 출전한 '날아라 인천'팀이 우승을 차지해 관심을 끌고 있다.

상금 1억원의 주인공은 주장 이기영(32·조선일보), 박운철(35·인천시의료원 안과 과장), 오상응(23·인천교통공사 공익근무, 서강대 휴학), 최종인(19·한양대), 배현주(57·주부)씨 등 모두 5명이다.

지난 1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예심을 거친 이들은 인천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의 특성과 인천시의 엠블럼 'Fly Incheon'에 착안하여 '날아라 인천'이란 이름으로 참가해 전국 퀴즈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문의 : 시 대변인실 ☎440-3074



##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 내년 11월 완공

우리는 무형문화재 종합 전수관을 내년 11월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지난 5월 9일 착공한 무형문화재 종합 전수관은 209억원을 들여 남구 문학동 인천 도호부청사 인근 8천700여㎡에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예능동 2채와 지하 1층, 지상 2층 기능동 1채, 한옥 형태의 전통문화체험관 등 4개 건물(연면적 6천800여㎡)로 짓는다. 야외공연장(놀이마당)도 꾸며진다.

전수관에는 공연장, 전시실, 공방, 회의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국가와 시 지정 무형문화재 24개를 후계자와 시민에게 전수하며, 기능보유자들이 제작한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시민이 문화재를 직접 익힐 수 있다.

문의 : 시 문화재과 ☎440-4482



## 청소년들, '다락'으로 모여라

인천문학경기장 내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인 인천시문학유스센터가 지난 5월 19일 인천지하철 문화예술회관역으로 이전해 '다락(多樂)'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다락'은 청소년들의 건전놀이와 공연관람 웹문화 활동 등 자유로운 휴식공간인 청소년 수다 공방과 친구들과 파티를 즐길 수 있는 파티룸 대여, 청소년갤러리, 댄스, 밴드연습실 등 전국에 유례없는 전용공간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다락은 스키캠프, 익스트림 스포츠대회, 청소년 기획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 전용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

문의 : 시 아동청소년과 ☎440-2852

**이제, 전화로 지방세 납부한다**

전화 한통이면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우리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은행방문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하여 집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ARS 납부시스템을 구축했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지방세 ARS납부시스템은 국번없이 1599-7200(처리뽕뽕), 1661-7200(처리뽕뽕) 두 대의 전화를 사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실시간 지방세 체납 및 부과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5만원 이하)를 이용한 실시간 지방세 납부와, 지방세 환급금 신청, 직원연결을 통한 지방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세정과 ☎440-2577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한다**

우리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12년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최종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지원 받는다. 이에따라 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출입구 근처 도보 구간(670m)을 다문화 특화 거리로 조성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내·외국인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작년에도 '외국인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사업'에 응모하여 중구 월미관광특구 커뮤니티 센터와 남동구 논현포대 다문화 쉼터를 조성한 바 있다. 문의 : 시 도시디자인추진단 ☎440-4792

**‘인천 펜타포트락 페스티벌’ 8월 10일 시작**

매년 한여름을 책임져왔던 인천 펜타포트락 페스티벌이 오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서동 드림파크에서 개최된다. 펜타포트락 페스티벌은 1999년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로 시작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대형 아웃도어 페스티벌이다. 2011년부터는 아츠, 프린지, K-POP 페스티벌 등과 통합된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로 재탄생하여 모든 음악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의 음악축제로 거듭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축제'로 지정 받았다. 락페스티벌을 포함한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7~9월까지 인천 전역에서 개최된다. 문의 : 시 문화예술과 440-4022

**112·119 신고시 위치 추적 가능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12신고 접수 시 실시간으로 신고자와 112센터, 119센터간 3자 통화를 연결해 119에서 신고자의 소재를 확인, 최단 시간 내 구조할 수 있는 핫라인 체계를 구축했다. 112·119간 핫라인 3자통화 시스템은 위치불명 위급상황 신고자가 112나 119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와 112신고, 119방재센터간 실시간 3자통화로 119의 위치정보 및 112의 IDS시스템 정보를 통해 신속하게 현장에서 응급구호와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앞으로는 신고자가 납치됐으나 장소를 모르거나 신고 도중 위치를 알리지 못한 채 전화가 끊긴 경우에도 신고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해 2차 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 인천경찰청 ☎1566-0112

**인천앞바다 쓰레기, 서울·경기도와 함께 치운다**

우리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 부담 협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장마철 상류에서 떠내려 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82억원 가량으로 우리시가 모두 부담하기 어려워 상류 지역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했다. 쓰레기 처리 비용 중 우리시가 50.2%, 서울시가 22.8%, 경기도가 27%를 부담하며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유지된다. 시는 이번 합의가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수도권의 환경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항만공항해양국 ☎440-4892

**북 스타트 선포식 가져**

미추홀도서관은 지난 5월 24일 11개 공공도서관과 함께하는 인천시 북스타트 선포식을 가졌다. 우리시의 북스타트(BookStart)사업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으로 올해는 11개 거점 공공도서관(미추홀, 송림, 강화군립, 수봉, 영종, 울목, 중앙, 부평, 주안, 화도진, 연수)과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출생부터 만 18개월까지의 영·유아 1천6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이날 선포식은 참가자 등록과 함께 그림책 읽어주는 관장님,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전래동요, 11개 도서관에서 온 아가들에게 책 꾸러미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문의 : 미추홀도서관 ☎440-6647~8

**2025년 도시계획변경안 마련**

우리시는 지난 5월 9일 인구 340만명의 2025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0년에 수립된 2025 도시기본계획 예상 인구가 370만명에서 340만명으로 감소하고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다시 이뤄짐에 따라 변경안을 만들게 됐다. '누구나 살기좋은 글로벌 인천'을 목표로 하는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6부도심에서 3주핵 4부핵 6발전축으로 변경, 다핵 도시화로의 재편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 시는 이 같은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 9월 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문의 : 시 도시계획과 ☎440-4613

**인천AG 홍보대사 소프라노 조수미 위촉**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가 2014인천아시아 경기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김영수 위원장은 지난 5월 8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개최 기원 조수미 보헤미안 콘서트'에서 조수미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는 박태환(수영), 최불암(탤런트), 이봉주(마라토너)씨에 이어 조수미씨가 네 번째다. 조수미 국내 투어콘서트는 지난 4월 29일 광주광역시로 시작으로 인천을 거쳐 총 5회 개최됐다. 문의 :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440-4172

**인천교육청,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 14일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해당 증명서는 졸업, 성적, 재직, 입학, 휴·퇴학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연수이수 확인원 등이다. 고교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도 면제된다. 이들 증명서의 장 당 발급 수수료는 300원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제도도 개선돼 납부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불편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원인 편의와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의 : 인천교육청 ☎420-8315

**농어업인에 최대 5천만원 융자**

우리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농수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 농어업인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 5천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 2억원 이내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이내(2년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이내(2년거치 일시상환)로 융자금리는 2.0%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출장소 포함)나 읍·면사무소에 있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시 농축산유통과 ☎440~4363



**정서진 아라뱃섬에 강 보러 오세요~**

장이 열렸다. 그런데, 뒤에 보이는 커다란 풍력발전기가 장터분위기에는 조금 낯설다. 강바람만큼 시원한 가격으로 좋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경인아라뱃길에서 열렸다. 경인아라뱃길 아라뱃섬 정서진 광장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린다. 직거래장터에서는 강화인삼, 쑥엑기스, 버섯류, 화훼류, 다시마 및 친환경 쌀 등 25여 종의 농특산물을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질 좋은 각종 제철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는 오는 11월까지 지속된다. 알뜰한 주부라면 이번 주말, 경인아라뱃길로 나들이를 계획해보면 어떨까? 가족들과의 추억 만들기는 물론,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1석2조의 나들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의 : 시 농축산유통과 ☎440-4373

# Council News

## 전국최초 학교폭력예방 조례 제정

인천광역시의회가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 가해·피해 학생을 치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노현경·허희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인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협의, 도출한 단일안에 대해 의결했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 부각된 이후 전국 시도에서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 가해·피해 학생 치유 등에 대한 교육감, 교장,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했다.

학교 폭력 사례와 예방에 대한 연구, 학생들의 건전 가치관 형성과 생활 교육 강화, 학생 자치활동 강화, 폭력 조기 발견을 위한 또래 상담·중재 활성화 등도 포함돼 있다.

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해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지 않고 교육청, 시, 군·구, 경찰, 사회복지기관, 전문의 등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 상시 운영하는 등 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내용이 망라돼 있다.

시의회는 한 관계자는 "의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추진하도록 조례로 뒷받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학교체육시설 개방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체육시설의 효과적 개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로는 교육위원 및 시의원, 교육청관계자, 학교장, 인천시생활체육회회원, 학부모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5일 근무제 확대 및 고령화 사회를 맞아 심산단련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욕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을 시민 생활체육공간으로 개방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체육시설의 효과적인 개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와 지역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개방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 2011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5월 9일 의장실에서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교부하는 위촉식과 향후 검사일정 및 주요 착안 사항 등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과 신현환 의원 등 결산검사위원 10명을 비롯하여 이정호 인천시 자치행정국장, 김창수 인천시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등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류수용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5월 9일부터 실시되는 결산검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5월 9일부터 23일까지는 인천광역시 결산을 검사하고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결산을 검사하는 등 2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월미은하레일사업조사특위 회의

인천광역시의회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는 임시 시험운영 업무보고,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등에 관한 회의를 지난 5월 10일 열고, 관련기관의 답변을 들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안전성 검증에 9개월은 너무 기간이 길지 않은지 >경제성과 안전만 가지고 답이 나오는 데 결단을 왜 못 내리는지 >용역이 두 달 넘게 지연된 이유 >검증위원회는 전문가들이며 문제가 있어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안전성 검증에 전문가 참여계획 등을 물었다. 특위는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 제202회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의회 방문

무카셰프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의회 의장 및 의원 4명이 지난 5월 18일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했다.

방인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의회 의장은 인천에 대한 도시계획과 선진 의정을 둘러봤다. 인천광역시의회 류수용 의장은 무카셰프 의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인천과 카자흐스탄간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도시의회의 활발한 교류협력이 추진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방문단은 첨단 환경도시인 송도국제도시 건축물 및 시설을 세세히 둘러보는 자리에서 의료, 관광, 물류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국의 우수한 기술인 건설, 건축, 농업, 환경자동화시스템, 의료 분야 등을 교류를 통하여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 '빛내서 기숙사 짓는 교육청' 5분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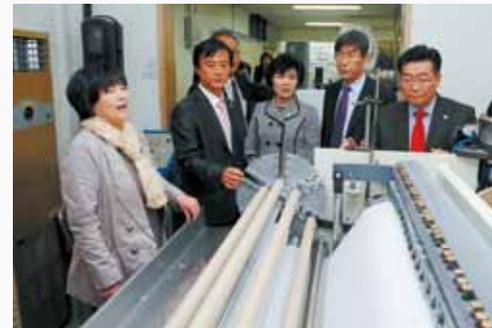
노현경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교육위, 기획행정위)은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빛내서 짓는 일반고의 기숙사 문제'에 대해 5분발언을 했다. 노 의원은 특수목적고의 기숙사와 달리 일반고의 기숙사 건립에 대해 인천의 10만 고등학생들은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인 교육예산을 인천학생들의 올바른 교육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 특혜성 예산지원으로 학교 증개축이 이뤄졌는데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슬림하게 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 주안북초등학교 모의의회 열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9일 인천주안북초등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89회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주안북초등학교의 모의의회 안건은 '학교도서관 만화비치'와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안'이다. 학생들은 학교도서관 만화비치안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 사진으로 보는 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복지관 운영상황을 보고 받고 해내기 보호 작업장 등 시설을 둘러봤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해밀학교를 방문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고 시설을 둘러봤다.

# 선진 IT기술과 한국어, 태권도 ‘열공’

우리나라에 최초로 연수생으로 온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국비 연수생들이 파라다이스 호텔에 마련된 재능학사에서 묵으며 현재 IT기술과 한국어 실용강좌, 영어문법 및 작문 배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 연수를 통해 나이지리아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지리아 국비 연수생들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다. 총 84명이 파견돼 인천재능대학교를 비롯해 인덕대, 군장대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국제교육문화원(IECC)이 주관한 나이지리아 기술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배정된 대학에 머물며 1년간 현장 실습형 기술 교육을 받는다.

재능대학교에 온 국비연수생 17명은 파라다이스 호텔에 마련된 재능학사에서 묵으며 현재 IT기술과 한국어 실용강좌, 영어문법 및 작문을 배운다. 또한 산업체 현장 견학과 한국문화도 탐방할 계획이다.

이승후 교수가 지도하는 한국어 교육은 한글에 대한 이해와 기초적인 회화가 가능하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어는 캐나다 국적의 Dale Ebsary 강사가 맡는다. 연수생들의 우수 작문을 대학학보와 여자신문에 게재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도화실내체육관과 재능대 체육관에서 인천시 태권도협회 박운서 전무이사의 지도로 진행되고 있는 태권도는 연수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연수생들은 전원 태권도 공인 1단을 취득해 귀국하도록 하고 있다. 태권도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를 아프리카에 전파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에 앞서 지난 2월 29일 오후 4시 재능대 본관 5층 대강당에서 3개 대학연합 환영행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기우 재능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연수생들에게 선진 IT기술과 한국어, 태권도 교육을 실시해 나이지리아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글. 강남규\_인천 나은병원 기획부원  
응급의학 전문의

## 세포는 ‘소식(小食)’을 좋아해

금세기에 접어들어 인간 수명이 괄목하게 연장되었지만 그것이 건강한 삶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수치상 생명 연장만을 위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당장 내일 죽더라도 편안하게 삶을 마치는 것이 건강한 삶이다.

이런 면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건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순히 육체적 건강은 병원에서 정기적 조기검진과 발달된 현대의료 기술에 의존하여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 의미의 건강한 삶이란 어떤 치료약이나 수술로써 단시간에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요인의 유기적인 연관성 속에 하나의 건강한 인격체가 형성되기에, 원래 인류가 자연과 함께 살아왔던 대로 삶을 살아가며 친환경적인 음식섭취와 올바른 생활습관을 오래도록 유지하면서 서서히 몸을 변화시킬 때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몇 가지를 조언하면,

**첫째,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흰쌀밥이나 빵, 라면, 피자 등 정크식품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단당류의 당지수가 높은 음식으로 장기적으로 오래 섭취할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발병률을 급격히 높이는 근본 요인이 된다.

**둘째, 과식과 폭음, 폭식을 자제하고 짜게 먹는 습관을 중**

**단한다.** 과식과 폭음, 폭식은 비만을 초래하고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여 동맥경화증 유발의 요인이 되며 체내 신진대사의 원활한 활동을 저하시킨다.

**셋째, 소식(小食)을 하고 음식은 최대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 소식을 하면 신체의 모든 신진대사와 세포들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프리라디칼(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손상이 감소되어 면역력이 증가하고 또한 세포의 노화방지와 성인병의 발병도 현격히 감소시킨다.

**넷째, 제철과일과 갖가지 색상의 야채를 먹는다.** 서양인과 다른 대장 구조상 한국인은 식이 섬유가 풍부한 야채,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특히 양배추에는 비타민E,K가 풍부하여 위궤양, 위염, 위암예방의 효과가 있으며, 이로운 성분이 파괴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과일과 야채는 날것으로 먹는다.

그 외에도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고, 견과류를 적당히 먹으며,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또한 매일 매일의 규칙적인 적당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적이다. 현대인의 만성질환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질병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몇 가지의 생활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만성질환이 예방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일상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 생활정보

## 제1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제17회 여성주간(7월 1일~7일)을 맞아 시민 모두가 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성 평등한 사회' 여성이 행복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연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 2012년 여성의제 토론회

- 6월 27일(수) 15:00~17:30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본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방향' 주제발표 및 토론회

### 제17회 여성주간 기념식

- 7월 5일(목) 13:00~17:0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문화행사(합창, 연극, 오케스트라공연, 실버댄스) 및 기념식

###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 7월 5일(목) 13:00~ 17:0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야외공연장

### 제8회 인천여성영화제

- 7월 13 ~15일(3일간), 영화공간 주안

### 문화행사

일시	장소	행사명 및 내용	주관단체
6월 23일(토) 14:00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이 만드는 양성평등 테마송 페스티벌	청소년활동진흥센터
6월 23일(토) 10:00	인천대공원	오라차차 여성이 웃는다! 세상이 웃는다!	인천여성민우회
6월 25일(월) 14:00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	아빠 육아일기 공모전	여성단체협의회
6월 30일(토) 16:00~19:00	연수구 솔안공원	성 평등 도시인천 함께 상상하고 같이 만든다	인천여성회
7월 5일(목) 14:0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多 양성평등 글짓기 및 UCC 공모전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6월 25일 ~ 7월 7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외	살롱 뮤지컬 고양미 춤	극단 미임

- 문의 : 440-2693

## 인천장애우대학 참여자 모집

장애우문제연구소는 장애복지 지도자 및 자원활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인천장애우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바란다.

**입학대상** : 장애인복지 관련 공무원, 특수교사 및 사회복지사, 장애인시 설종사자, 시민사회단체회원, 자원봉사자,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부모, 각 대학교 사회복지 관련학과 학생

**모집인원** : 80명(05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

**교육기간** : 8월 9일~12월 13일(매주 목요일 오후7시~10시)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1통, 사진2매, 입학지원서1통 (본 연구소 소정 양식)

**등록방법** : 우편 및 내방, 온라인 접수 가능

**문의** : 889-8298, 881-8298

## 재미있는 문화행사 참여하세요

미추홀도서관은 6월 문화의 행사를 연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란다.

### 미지의 세계, 동유럽으로의 여행

- 일시 : 6월 7(목) ~ 21일(목), 매주 목요일 19:00 ~ 20:30
- 장소 : 미추홀도서관 세미나실1(3층)
- 주제 : 동유럽의 정치, 사회, 예술, 문화 등의 분야별 전문가 강의
- 문의 : 440-6662~5

### 시민건강강좌

- 일시 : 6월 9일(토) 10:30 ~ 11:30
- 장소 : 미추홀도서관 세미나실1(3층)
- 주제 : 척추협착
- 강사 : 이기열(인천성모병원 척추센터 전문의)
- 문의 : 440-6662~5

### 박성환 작가전

- 일시 : 6월 7(목) ~24(일)
- 장소 : 미추홀도서관 1층 미추홀터
- 내용 : 인위성을 지우고 극도의 순결성, 실재성을 이루는 회화
- 문의 : ☎440-6643

## 한국 근·현대 미술의 큰 별들전

한국 미술의 큰 획을 그은 화가들의 전시가 열린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큰 별들전'은 한국미술의 거장들의 수작을 한데 모았다.

**전시명** : 한국 '근-현대 한국미술의 큰 별들 전'

**기간** : 5월 19일(토)~7월 1(일)

**전시내용** : 20세기 이후 미술 거장 35인 70점~80점

- 박수근, 이중섭, 천경자, 김홍수, 김은호, 김환기, 김기창, 변관식 등

**관람료** : 성인 7천원, 학생 5천원

**주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문의** : 420-2712

## 강화약썩, 그 향기 속으로 초대

강화도 특산물로 자리잡은 강화약썩은 시원한 박하향과 독특한 모양으로 사자발약썩이라 불린다. 강화약썩의 효능을 알리는 '제4회 건강약썩 강화약썩 축제'가 열린다.

**일시** : 6월 9일~20일, 강화약썩특구 아르미애월드

### 프로그램

- 체험프로그램 : 한방사상체질 진단, 약썩뚝 체험, 약썩좌흔 움집체험, 약썩맛사지, 약썩 천연염색, 약썩베기 등
- 행사 : 강화 관내 16개 약썩가공업체가 직접 참여하여 50여 종의 다양한 명품 약썩제품을 선보이며, 약썩먹거리마당은 약썩 냉면, 약썩막걸리, 약썩국밥, 백마리약썩새우튀김, 약썩전 선보임.

**문의** : 930-4121~3, www.armiae.com

##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모바일웹서비스 실시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는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학습이 가능한 모바일웹서비스를 5월부터 새롭게 오픈했다. 시민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



**학습방법** ▶ 스마트기기 접속 : m.cyber.incheon.kr

▶ QR코드 접속 :

- iso기기 : Apple사 아이폰, 안드로이드
- OS기기 : 갤럭시, 갤럭시탭, 옵티머스 등

**학습기간** ▶ 별도의 기간 없음(언제 어디서나 가능)

**수강신청** ▶ 별도의 수강신청없이, 모바일웹 로그인 후 동영상 즉시 수강

**제공과정** ▶ 자격증(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83개 과정

**수료기준** ▶ 없음(수료증 발급안됨)

**교육비** ▶ 무료(단, 스마트폰으로 이동통신사의 3G 네트워크 접속 시, 데이터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음)

**문의** : 440-7674~s5



## '살아있는 책' 만나세요

부평기적의도서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책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독서이자 만남의 시간에 가족여러분들을 초대한다.

**프로그램명** : 제3회 휴먼 라이브러리(Human Library) : 사람책을 만나다

**초청자** : 인천길병원 소화기내과 박동균 의사

**일시** : 6월 30일(토) 10:30~12:00

**접수** : 5월 9일(토)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 40가족 (어른+어린이 구성으로 총80명)

**장소** : 부평기적의도서관 어울림

**관람료** : 무료

**문의** : 505-0612~3, bpm.or.kr

## 박강성 30주년 기념 콘서트 'In The Beginning'

1982년 데뷔 때로부터 지금까지 박강성은 그 모습 그대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흔한 스퀘드 하나 없이, 노래 부를 때를 제외하곤 마치 목연 수행 중인 수도자처럼 살아온 그가 30주년 공연을 연다.

**공연제목** : 박강성 30주년 기념 콘서트 인천

**공연일정** : 6월 29일(금) (P.M) 7시 30분, 1회 공연

**장소** :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기획/제작** : Booming Ent

**주관** : 다본

**후원**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연수문화원

**티켓가격** : VIP석 99,000원, R석 77,000원, S석 55,000원

**협연 밴드** : 11인조 팝 세션

**공연문의** : 엔 티켓, 인터파크m 티켓링크 271-0041

## 3기 평생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근로자문화센터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재직자 뿐만 아니라 취업·창업 을 하고자 하는 인천시민들에게 직업능력개발, 어학능력개발, 취미생활 및 건강웰빙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 : 인천시민

**교육기간** : 7월 9일 ~ 9월 15일(10주)

**신청기간** : 6월 18일~ 7월 5일

**교육비** : 무료(교재 및 재료비 본인부담)

### 운영 프로그램

#### • 직업능력개발

- 컴퓨터 : 엑셀TQ자격증, 파워포인트, UCC 동영상,
- 자격증취득 : 풍선아트, 종이접기, 생활매듭, 독서논술, 미용, 제빵, 중식요리
- 창업과정 : 손뜨개, 홈패션, 아동복만들기, 한복만들기, 드레스디자이너

#### • 어학능력개발

- 영어 : 왕초보영어,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원어민영어
- 일어 : 초·중급, 원어민
- 중국어 : 초·중급, 원어민
- 외국인 한글교실

#### • 건강웰빙 및 건강강좌

요가, 라틴댄스, 파플러댄스, 탁구, 생활요리, 양재, 미용, 사물놀이, 모듬북, 오키리나, 피아노 등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www.insiseol.net)

• 우선접수 : 6월 18일~20일까지 방문접수

• 일반접수 : 6월 21일~7월 5일 인터넷 이용한 선착순 접수

**문의** : 578-6123

## 6월 문화예술 행사

울목도서관은 6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연다. 문화의 향연에 관심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6월을 즐기길 바란다.

### 제목 : 러시아 가곡과 함께하는 체홉문학

일 시	참고 작품	주제	비고
6월 2일(토) 오후 2시		공간과 예술	
6월 9일(토) 오후 2시	- 소설 〈다락방이 있는 집〉	도덕과 불문	청소년이상/사전 방문 및 전화 접수 (50명 내외)
6월 16일(토) 오후 2시	- 소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일상과 일탈	
6월 23일(토) 오후 2시	- 희곡 〈바나 아저씨〉	전통과 변화	
6월 30일(토) 오후 2시	- 희곡 〈벚꽃동산〉	환상과 인상	

**장소** : 울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접수기간** : 6월 ~ 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 770-3800

**문의** : 770-3804

### 제목 : 밤나무골(栗木) 다락방(多樂房)문학교실-고전읽기

일 시	고전 작품	강사	비고
6월 8일(금) 오후 2시	무명 (이광수)	문학작가 이성재 (수필가)	지역주민 누구나, 사전 방문 및 전화 접수 (50명 내외)
6월 14일(목) 오후 2시	물레방아 (나도향)		
6월 21일(목) 오후 2시	홍염(紅蓮) (최서해)		
6월 28일(목) 오후 2시	동백꽃 (김유정)		

**장소** : 울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접수기간** : 6월 ~ 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 770-3800

**문의** : 770-3809

### 제목 : 인문학특강 「비움+채움」

**일시** : 6월 14(목) 오후 7시 ~ 9시

• 주제 : 食 “영혼의 공간을 채우는 음식”

• 강사 : 성석제(소설가)

저서 <인간적이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칼과 황홀> 등

**장소** : 울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접수방법** : 770-3800

**문의처** : 770-3802

## 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 개소

‘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과 ‘산하기관이 느티나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한신플러스케어 인천서부센터’가 인천시 서구 심곡동에 개소했다. 인천시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사회복지재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재단명** : 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13번지

**문의** : 1661-7331

## 연수문화원 지역행사

연수문화원은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

### 연수구의 과거 사진자료 찾습니다!

향토사대중화사업 “연수구 그때를 아시나요?”의 일환으로 과거 연수구 마을의 모습과 구민들의 삶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수집한다.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집기간** : 5월 1일(화) ~ 10월 13일(토)

**수집내용** : 1980년 이전 연수구 사진자료 및 설명문(마을모습, 주민생활모습)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yeonsucc@hanmail.net)

**기타사항** : 제출된 자료는 복사 후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는 본 사업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제 10회 한국시외국어 낭송회

6월의 초여름 저녁, 시민들의 시와 번역된 시를 동시에 낭송한다.

**일시** : 6월 16일(토) 19시

**내용** : 한국시 외국어 낭송, 한국시 낭송, 문화공연 등

**장소** : 원인재

**후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 제 9회 연수깊이알기 경진대회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현장을 시, 산문, 사진을 통해 표현하고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란다.

**일시** : 6월 30일(토) 11시

**장소** : 원인재

**대상** : 연수구 관내 초등 4학년 ~ 중학생

**대회종목** : 향토백일장(시, 산문), 향토사진

**접수방법** : 현장 및 단체접수 가능

**문의** : 821-6229

## 서울기독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 안내

서울기독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교육생을 모집한다. 다양한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고용보험환급과정** : 미술상담사, 상장레지도자, 네일아트

**여름특강과정** : 사회복지사 1급 대비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반, 스포츠 마사지, 에어로빅강사, 요가, 필라테스, 재즈댄스, 기독교 무용 음악실기 레슨반(플룻, 바이올린, 작곡, 성악, 피아노), 목회·신학 과정, 설교 아카데미과정

**모집인원** : 각 40명

**오리엔테이션** : 6월 23일(토), 오후 6시 소강당

**개강일** : 6월 23일(토)

**상담전화** : 02)2178-8135~6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4길 26-2 서울기독대학교 평생교육원

## 한중 청소년특별교류 참가자 모집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양국 정부가 시행하는 ‘2012 한중 청소년특별교류 한국대표단 2차 파견’사업에 참여할 청소년들을 모집한다.

**사업명** : 2012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2차 파견(중국) 사업

**기간** : 8월 8일(수) ~ 15일(수), 8일간

**장소** : 중국 북경 등

**주최** : 한국 여성가족부, 중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참가자** : 만16~24세까지 대한민국 청소년(통역 : 만20~29세)

**주요활동** : 중국 주요정부기관 및 지방정부 방문, 청소년교류 및 문화교류, 청소년 시설 방문, 중국 현지 문화체험

※ 세부 프로그램은 중국측과 협의 중이며, 일부 단원은 방송녹화 프로그램에 일정중 1일 정도 참여할 수 있음

**문 의** : 02)2075-4500

##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운영

우리는는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시간**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13:00 ~ 18:00

**장소** : 별도 공지

**상담반** : 분야별 전문 상담위원(주택관리사,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상담분야**

-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관리규약 제정·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택관리업자,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 하자분쟁, 리모델링, 재건축 등은 별개 법령과 절차가 있으므로 상담분야 제외

**신청방법**

- 신청자격 :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동별 대표자, 입주민 등
- 신청기간 : 각 구별 신청일자
-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 제출 및 팩스접수(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을 위하여 상 담분야 및 요지를 작성하여 사전신청)

•문의 : 각 구 주택과

## 제주서 세계자연보전총회 열려

제주도특별자치시는 2012년 9월 전세계 180개국 1만여명의 환경리더와 함께하는 환경축제인 ‘2012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를 연다.

•환경축제 : 8월 16일~ 9월 15일(31일간) 제주도 전역

•보전총회 : 9월 6일 ~ 9월 15일(10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문 의** : 064-710-2053

## 조선 프로페셔널-조선후기 수장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한 ‘2012 박물관 시민강좌’를 운영한다.

**6월 시민강좌** : 조선 프로페셔널 – 조선후기의 수장가

**일시** : 6월 2일(토), 14~17시

**강사** : 박효윤(홍익대학교)

**장소** : 인천시립박물관

**대상** : 일반시민 누구나

**문의** : 440-6734

## 왕따, 학교폭력 이해 및 예방을 위한 공개강좌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상처받는 모습들을 만나고 치료하면서 부모님과 선생님, 사회전체의 관심을 다루는 보다 뜻 깊은 행사다.

**행사명** : 학교폭력 이해 및 예방을 위한 공개강좌

**행사일시** : 6월 15일(금) 오후 2시 ~ 4시 30분

**장소** : 인천 남동구보건소 강당

**대상** : 교사 및 학부모

**내용**

구분	일정	행 사 내 용
1부강의	14:00~14:50	<b>사회적 측면에서 학교폭력</b> 강사: 동부교육청 WEE센터 스쿨폴리스 학교폭력의 실태 및 사례
2부강의	14:50~16:30	<b>정신건강 측면에서 학교폭력</b> 강사: 서울신경정신과 성덕규원장 왜 따돌리고 괴롭히는가?

**문의** : 465-6412, 3

## 2012 드림파크 봄 꽃밭개방 계획

드림파크문화재단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드림파크 조성 등에 따른 환경명소 실현을 위해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꽃밭을 개방한다.

**행사명** : 2012 드림파크 봄 꽃밭 개방

**행사일시** : 5월 25일(금)~6월 10일(일) 17일간, 09:00~18:00

**장소** : 녹색바이오단지 일원

**대상**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회체

**주관** : (재)드림파크문화재단

**셔틀버스 운영** :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를 위해 검암역 앞 버스정류장에서부터 행사장까지 셔틀버스 운행(평일 포함)

시간	장 소	배차간격
셔틀버스	공항공도 검암역 앞 ↔ 행사장 (45인승 버스, 공휴일 20분, 평일 60분 간격 운행)	20~60분

**문의** : 5609-904

# 이달의 서평



## 당신은 행복한가

달라이 라마, 하워드 커틀러 | 문학의 숲 | 2012

이 책은 '혼자 행복해도 되는가,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가'하는 물음을 던지며, 나의 행복은 타인에게 달려 있음을 일깨워 준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내가 행복을 추구할 때 다른 사람의 행복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은 어떤 관계인지 알 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자비라고 이야기하며, 이처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것이 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강력한 진리라는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다.



## 열일곱 살, 평 터질 것 같은

멜리나 마체타 | 책그릇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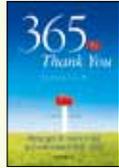
호주 고등학교의 작문, 토론, 연극 수업 교재로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작품으로, 10개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작가가 직접 쓴 시나리오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인기를 얻었다. 이탈리아계 호주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데다 미혼모의 딸이라는 이유로 분노할 일이 너무나 많은 소녀 알리브란디. 학교와 가족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싶지만 걸림돌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나타난 두 남자와 할머니의 오래된 비밀이 그녀의 일상을 뒤흔트는데... 열정을 다해 온몸으로 부딪치는 소녀의 청춘 이야기가 발랄하면서도 경쾌하게 펼쳐진다.



## 생각에 관한 생각

대니얼 카너먼 | 김영사 | 2012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 심리학자가 밝혀낸 이론으로, 인간의 2가지 사고체계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의 충돌과 융합을 독창적 사례 분석으로 도출해낸 책이다. 행동경제학의 기원과 탄생, 발전 과정을 한눈에 통찰하는 이 책에서 작가는 아모스트버스키와 함께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을 유발하는 두 주제를 '시스템 1,2'로 명명하며, 이를 통해 흥미로운 인간의 정신 생활을 적나라하게 설명한다.



## 365 Thank You

존 크래릭 | 한국경제신문사 | 2011

작가는 인생의 최악이라고 생각되던 시기에 감사할 거리를 찾고, 감사편지를 쓰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와 삶과 마음의 변화를 담은 에세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직장 동료, 대학 친구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손수 쓴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 저자는 감사할 거리를 찾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동안 스스로의 삶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되었다. 그 결과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고 심오하며 놀랄만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음을 이야기한다.



## 주제별 추천도서

자료제공 | 제주출도서관 440-6655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बंध의 기술	레베카 인하르트	웅진지식하우스	불확실한 삶이 두려운 이들을 위한 철학연습
당신은 행복한가	달라이라마, 하워드커틀러	문학의숲	10년만에 다시 열린 행복에 대한 특별한 토론
성장의 한계	도넬라 H. 메도즈	갈라파고스	자연, 경제성장과 환경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할지 문제를 제기한 연구서
생각에 관한 생각	대니얼 카너먼	김영사	2002년부터 기다려왔던 단 한권의 책, 행동경제학의 바이블
세상을 바꾼 과학논쟁	강윤재	공리	과학과 사회 뒤 문화의 즐거운 만남을 상상하다
세프의 딸	나카가와 히데코	마음산책	맛있고 심플한 삶 코즈모폴리탄의 이야기
바람을 뿌리는 자	넬레 노이하우스	북로드	풍력에너지 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배신과 복수, 음모를 흥미진진하게 그린책
열일곱 살, 평 터질 것 같은	멜리나 마체타	책그릇	가침없이 감정을 쏟아내는 소녀의 열정적인 성장기
미스터 노노레일	김중혁	문학동네	기발한 상상력과 능청스러운 유머, 따뜻한 감성과 삶의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
365 Thank You	존 크래릭	한국경제신문사	인생의 최악이라고 생각되던 시기에 감사편지를 쓰면서 변화된 삶과 마음의 변화를 담은 에세이
전쟁으로 읽는 한국사	김광일	은행나무	한반도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결정적 전쟁이야기
조선의 가족, 천개의 표정	이순구	너머북스	조선시대 가족들의 다양한 사연을 들여다보다

##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 시인 최성연

현대 시조시인. 1914년 인천 출생. 호는 소인(素眼). 1934년 경성 제2고보 졸업. 1960년 인천시문화상, 1964년 경기도문화상 수상. 국제보도 편집장을 지낸 뒤 경인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1955년 《동아일보》 창간 35주년 현상문예에 시조 〈핏자욱〉 당선. 이후 〈사생도〉, 〈청자〉, 〈종목 송가〉, 〈술개〉, 〈나의 묘지명〉 등 대표작을 내놓았다. 이밖에 〈혹한〉(1956), 〈산수마차〉, 〈갈매기도 사라졌는데〉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한편 〈현대시조의 지역별 작품경향〉 등의 평론이 있으며, 1955년에 출간한 시조집 〈은어〉가 있다. 기타 저서로 인천 향토시인 〈양관과 개항역정〉(73)이 있다.



## 소중한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

본 정보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구인자료로, 조기에 채용이 완료 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자는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032) 458-7488, 74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모집직종	인원	경력조건	학력	업무능력	근무지(주소)	임금액
우리시스템	알루미늄 단순생산직	3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알루미늄 단순절단 및 조립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86-8	시급 4,580원
극동가스케트공업	제조관련 단순종사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자동차부품 검사 및 포장, 기계조작 및 생산보조관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5-11	시급 4,600원
성우실업	플라스틱제품 생산직	3명	신입	학력무관	플라스틱 증착 생산품 양산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3동 473-4	시급 4,580원
서울기공	CNC선반원	2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CNC선반, MCT보조 및 조작용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69-26	월급 160만원
동원테크	전자부품 단순가공	5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핸드폰부품 및 전자제품 CNC단순 가공 업무, 보조관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함박미로 377번길	월급 130만원
씨테크	테이프임가공 생산직	5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테이프 임가공 생산 및 포장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10-6	월급 145만원
(주)노토스	전동기 모터 제조단순원	5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전동기모터 제조 조립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27-1	월급 150만원
(주)보성인더스트리	생활용품 포장재 생산	4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식품 포장재 기계조작 보조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95	시급 4,580원
(주)수협유통인천사업소	수산물가공원	5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수산물가공 및 포장업무	인천 중구 향동7가 64-7	월급 160만원
삼지금속	제품조립 및 배송사무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헤어브러쉬 조립, 제품검사 및 포장, 배송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517-9	월급 130만원
아산 맑은쌀농협직판장	식자재 배송 및 납품운전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식자재 배송 및 납품운전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화동 274-2	월급 180만원
비엔티	창고관리 및 배송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냉장쇼케이스 창고관리, 제품입출고 및 관리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테크노파크 17층	월급 120만원
상지F&I	배송 및 납품운전원	3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남천할매 떡볶이 분사 물류기사 각지점 식자재 납품관리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03-8	시급 6,000원
에이티솔루션	품질관리사무원	4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푸드관련코팅, 사출, 프레스 품질관리업무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1동 178-165	월급 150만원
장애인재활사업복지원	경리사무원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경리사무원(사회복지사2급소지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51-1	월급 180만원
대인테크	웹마스터 및 웹개발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홈페이지, 오픈마켓, 쇼핑몰 제작 및 관리, 광고, 마케팅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95-3	월급 150만원
중원금속	폐재활용 분리업무	3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재활용수거품 분리업무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신흥동 1가 94-6	월급 120만원
세종해운(주)	이동매표원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월미도-영종도 선착장 이동매표원 (외부 근무)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98-6 월미도 선착장	월급 150만원
(주)그린후드	단체급식조리사	5명	경력 1년 이상	학력무관	주방보조 및 보조업무 (한식조리사자격증 소지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5-5 한성플랜지	월급 130만원
에스알에스코리아	공항 면세점 내 음식서비스종사원	2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인천공항 면세 구역내 푸드코트 홀청소업무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월급 142만원

☞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구인·구직을 돕기 위해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458-7470 ~ 7479, 7488, 7494(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5번출구 50m 전방)

# 인권상담과 인권침해 진정 방법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뭘 보고 그러는데?  
 이거 봤어? 지적장애인들을 20년 동안 돈 한 톨 안주고 노예처럼 부려 먹었다는 거야.  
 나도 그 기사 봤어. 안타까운 일이지. 쫘쫘...  
 이것뿐이야. 사실 사회에 인권침해행위가 한두 개여야 말이지.  
 이젠 그런 일이 많이 없어질 거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법을 시행(2012. 3. 21.) 된 거 몰라?  
 인권침해 조사대상 기관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상담과 진정 접근권이 보장됐다고.  
 응? 그건 무슨 얘기야?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질적인 범위와 효과가 확대됐다. 이거야.  
 기존 인권위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차별행위는 법인, 단체, 사인 포함)만 조사 가능  
 법 개정후 공기업 등 공적유관단체(704개), 사립학교(6,200개) 까지 확대  
 오~그거 반가운 소식인데...  
 이제 인권침해가 많이 줄어들겠군.  
 좋아! 나만 들들 볶는 놈 과장한테 이 사실을 알려줘야겠군~  
 야 그게 인권침해냐? 그건 네가 매일 지각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하하하...  
 인권침해 상담과 진정 안내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1

제작 : 문화체육관광부 매체협력과 ☎ 02-3704-9575 / 자료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 02-2125-9378



Love Incheon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아킴 선생님이 근무를 끝내고 고향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갔습니다. 유독 인천을 좋아했던 선생님. 다음에는 대학원생으로 우리나라에 오신다니, 선생님의 한국사랑 인천사랑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꼭~

장명숙\_남구 경원대로



갈매기가 자주 쫓아와요~

작년 강화 동막해수욕장. 딸이 갈매기에게 새우깡을 주더니 새가 쫓아온다며 웃으며 달려오네요. 갈매기는 새우깡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새우깡만 들면 쫓아와요.  
 조규섭\_강화군 선원면



모네의 공원

우리 아파트 앞 용정근린공원에 왕귀비꽃이 핀 모습이 장관입니다. 마치 모네의 공원에 놀러 온 듯 하지 않나요? 이렇듯 아름다운 향터를 만들어 준 공무원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네요.  
 나수정\_남구 경안남길



송도센트럴파크 좋아요~

15개월 동갑내기 아기가 송도센트럴파크로 나들이 갔어요. 뒤에 보이는 멋진 건물과 초록잔디가 마치 외국 같아요. 아기가 공놀이하면 서 신나게 놀았네요. 나들이장소로 송도센트럴파크 '강추합니다!'  
 김민경\_남동구 간석로



우리의 아지트

동생이 사는 인천에 갈 때면 용유도에 들리곤 합니다. 요즘은 용유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리 잡을 곳이 마땅치 않은데, 선녀바위 뒤쪽에 이렇듯 숨겨진 명당이 있었네요~ 즐거운 한때입니다.  
 김이정\_경기도 파주시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칭찬하거나 알고 싶은 주변의 이웃을 사진과 함께 소개(원고지 1매)해 주세요.
- ※ 채택된 분께는 문화상품권(1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보내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문의 : 440-8305



## 평생학습은 ‘섬세’해야 한다

글. 김은경\_인천 남구청 평생학습담당관, 정치학 박사

주민들의 학습현장에 감돌던 배움의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질 때면, 내 가슴이 살아남을 느낀다. 일상이 녹록치 않아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데 무슨 공부를 해”, “그런 걸 배워서 어디다 써” 라는 배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을 마주할 때도 있다. 안타깝지만 하다. 그래서 자문해 본다. 삶에서 평생학습은 어떤 의미일까.

문맹퇴치운동을 벌였던 때가 있었다. 교육정도가 낮아 제 이름자 하나도 못 쓰는 사람이 많아 정부차원에서 벌였던 운동이다. 남들 배울 때 배우지 못하고 생계를 책임졌던 어린 가장의 얘기는 과거에만 있지 않다. 교육만이 희망이라며 온통 교육에 매달리는 한편에는 학교교육마저도 포기하고 생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현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남편이 운전면허 학원에 가자는 바람에 글 모르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학습자를 만났다. 젊은 학습자가 의외로 많은 문해학습 현장을 보면 더욱 실감난다. 지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평생교육은 학교 율타리를 벗어나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육을 뜻하지만, 공급측면이 강조되다 보니 사정상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면 배울 기회조차 없다. 학교교육에서 소외되었기에 학습이 절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평생학습은 평생교육의 대안 개념이다. 학습자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 평생학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대상이 아니라 헌법과 교육기본권에서 보장한 학습권

을 누리면서 언제, 어디서든,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을 주도적으로 하는 주체 의미를 살린 것이다. 평생학습 관계자들은 평생학습에서 시민들을 주체적 학습자로 인식하고, 섬세하게 다가가야 한다.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에 맞는 조건을 갖추는 일”은 공급자가 아닌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가능한 일이다. 더불어 학습자가 배움을 수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권리로 자연스레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소소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평생학습 다울 수 있다.

학습의 의미는 삶의 의미를 밝히고 구성하는 데 있다.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삶을 대하는 현명함을 체득할 수 있다. 이것이 평생 학습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다.

### 가슴에 새긴 한 구절

브레히트는 “인간의 가치는 자신과 세계를 변모시키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모의 결과가 아니라 변모의 과정이다.

- 에른스트 블로흐 -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 1884~1977) 독일의 꿈꾸는 철학자. 나치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 2차 세계대전 직후 동독 라이프치히 교수로 임용되었으나 관료주의에 반항했다는 이유로 교수직 박탈. 서독으로 망명. 대표작으로 <희망의 원리>, <꿈과 저항을 위하여> 등이 있다.



## 갔다 올까?

잠시 바닷바람이나 쐬려고 나왔는데...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들을 보니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갈매기도 자꾸 보채는 듯하다. 마침 차양 넓은 모자도 썼겠다 그냥 어느 섬에 상륙하더라도 ‘해변의 여인’으로 금방 변신이 가능하다.

사람들은 너른 바다를 늘 그리워한다.

지구에 사는 사람 중 평생 바다를 한번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3분의 1이라고 한다.

인천 사람들은 행복하다. 마음먹으면 바다를 쉽게 만날 수 있으니.

연안부두, 소래포구, 만석부두, 화수부두, 북성포구... 게다가 150개의 섬이 앞바다에 가득.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글· 사진 유동현\_본지편집장